

# 이 소리

사단법인국학연구소 web magazine

# 011

- 시가 있는 마당(詩感想) / 무원역로 ● 김새갈
- 세상 사는 이야기(時論) / 국학과 과학 ● 최윤수
- 국학논고(研究論文) / 김교헌 민족사학의 의의 ● 김동환
- 국학 선열의 가르침(先烈高談) / 神市醫學(김두중) ● 편집부
- 건강하게 살려면(健康常識) / 비타민 D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 이윤수
- 아름다운 생각(隨想) / 단군께의 표성 ● 최남선
- 책으로 사색하다(책소개) /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김용섭) ● 편집부
- 연구소 소식 / 회원동정 ● 편집부

사단법인 국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KOREANOLGY

# 오, 소리

## 011

- 시가 있는 마당(詩感想) / 무원역로 ● 김새갈
- 세상사는 이야기(時論) / 국학과 과학 ● 최윤수
- 국학논고(研究論文) / 김교헌 민족사학의 의의 ● 김동환
- 국학 선열의 가르침(先烈高談) / 神市醫學 ● 김두중
- 건강하게 살려면(健康常識) / 비타민 D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 이윤수
- 아름다운 생각(隨想) / 단군개의 표성 ● 최남선
- 책으로 사색하다(책소개) /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김용섭) ● 편집부
- 연구소소식 / 회원동정 ● 편집부

발행일 | 단기4347(2014)년 7월 15일

발행인 | 박 성 신

편집인 | 사단법인 국학연구소

주 소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03

전 화 | 02) 3210-1333

전 송 | 02) 3210-1333

홈페이지 | [www.gukhak.org](http://www.gukhak.org)

본 잡지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시가 있는 마당 | 詩感想

## 무원역로 茂園歷路

김세갈(시인)

경술년 정월의  
인연으로  
하루 또 하루, 열 네 해가 가다.

종이품從二品の 정성으로  
하늘 받들던 날  
신단神壇의 이야기 천직天職으로 삼다.

신형神兄의 영선靈選으로  
소도장蘇塗長을 떠메어  
만주별 삼도구三道溝에 신시神市를 열다.

헌獻이라 외자字 이름 뉘 주셨나  
백유伯猷의 재능으로 종업倥業을 닦아  
무원茂園의 성盛함으로 종도倥徒를 늘이다.

백포白圃는 가고  
예관睨觀이 기우니  
호정湖亭의 죽음마저 흉금胸襟을 누르다.

계해년 동짓달

사언으로

하루 곧 하루, 열 네 해가 가다.



무원 김교헌이 그린 수묵 난초화  
(사단법인국학연구소藏)

부귀권세는 인생을 잡아 삼키는 블랙홀이다. 그 앞에는 인종성별도 없다. 성인군자도 없다. 권력 천 놈, 돈 가진 놈, 명예 얻은 놈, 서로 감싸고 기대고 격려하며 사는 것이 세상사다. 이 세상 더러워지는 이유다. 하기가 도道 닦는다는 놈들도 여기에 휩쓸려 만신창이가 됨을 흔히 본다. 권력과 명예와 돈을 위해 나라까지 팔아먹은 경험도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명분을 위해 부귀권세를 버린다는 것은, 고래가 강물에 사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다.

국망기에 물욕物慾을 누르고, 시대의 모순에 몸을 던진 이 가운데 무원 김교헌이 있다. 본관은 경주, 자는 백유伯猷, 호는 무원이다. 대종교에 입교한 후 헌獻이라 개명하고 당명을 보화당普和堂이라 했다. 출생지는 수원이지만 서울에서 성장한다. 공조판서를 지낸 창희昌熙가 그의 부친이다. 또한 어머니는 풍양 조씨로 판관을 지낸 희필熙弼의 딸이다. 그는 1885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대사성 등을 역임했다. 1898년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대중계몽운동에 뛰어들었고, 이어 만민공동회운동을 전개한다. 1903년에는《문헌비고》편집위원이 되었고, 신민회 회원들과도 적극적인 교우관계를 맺는다. 또한 조선광문회에 입회하여 현채·박은식·장지연 등과 함께 고전간행사업에 참가하였다. 1909년에는 규장각부제학으로서,《국조보감》감인위원을 겸직하였고, 1910년 종이품 가선대부嘉善大夫까지 오른 인물이다.

경술년(1910)년 정월, 나철과의 만남을 계기로 대종교에 입



수목화에 찍혀 있는 김 교현의 낙관

교한다. 이름도 헌獻이라 개명했다. 그리고 각종의 문헌을 섭렵하여 신 교神敎의 역사정립에 혼신을 기울인다. 《단조사고》·《신단민사》·《신단실기》·《진단사승震旦史乘》(현재는 전해지지 않음)·《배달족역사》·《홍암신형조천기弘巖神兄朝天記》등의 편찬이 그러한 결실들이다.

특히 '신단神壇'이라는 명칭은 우리 고유의 종교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용어다. 삼신일체三神一體인 하느님의 교화와 치화를 받은 민족인 천민天民·천손天孫의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뜻이 담겨있다. 이러한 김교현 신교사관의 정신적 흐름은 신채호·박은식·정인보·안재홍 등의 대중교계 민족사학자들의 역사정신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한편 무원은, 당시 대중교 활동의 중심에 있었다. 남도본사전리南道本司典理·총본사전강總本司典講 등의 요직을 역임하는가 하면, 나철이 만주로 순행했을 당시는 교주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기도 했다.

마침내 1916년 9월에는, 나철이 자진순교自盡殉敎에 앞서 행한 영선靈選에 의해 대중교의 제2대 교주에 취임한다. 영선이란 신교적 기도를 통하여 선출됨을 말하는 것이다. 무원은 1917년 일본의 탄압을 피해 대중교의 총본부를 동만주 화룡현 삼도구로 옮겼다. 우선적으로 교세확장을 통한 독립운동의 강화를 꾀하는 한편, 동포들에 대한 독립정신교육에 전념한다. 교당설립과 더불어 수많은 학교를 세움이 그 일환이었다. 대중교의 교당과 학교, 그리고 독립운동기지가 삼위일체 된 힘을 통하여 30만 교도를 확보한 것도 무원의 공로였다.

1918년 11월에는 대중교도들을 중심으로〈대한독립선언서(일명 무오독립선언서)〉를 주도하여 발표했다. 혈전주의의 이 선언은 후일〈2·8독립선언〉과〈3·1독립선언〉의 도화선이 된다. 같은 해 12월에는 대중교 교인들로 구성된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를 조직하여, 총재에 교단의 지도자인 백포白圃 서일徐一을 담당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무력투쟁을 전개한다. 1920년 청산리독립전쟁의 쾌거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 뒤 일본군의 경신대토벌을 피하여 총본사를 영안현寧安縣으로 옮긴다. 선도포교사업宣道布敎事業을 통한 구국투쟁의 의지를 더욱 다지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만주전역

에 걸친 일본군의 토벌작전으로 독립운동 및 교단의 기반이 크게 붕괴된다. 더욱이 교단의 중심인물이었던 백포 서일의 순교(1921)와 예관(兪觀) 신규식의 통사(痛死:1922), 그리고 비적들의 습격을 받아 가족과 함께 참사를 당한 호정(湖亭) 한기육의 비참한 죽음(1922)은, 대종교와 김교헌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다.

무원은 육신에 스며든 병마를 싸안고 조천(朝天:대종교 교주의 사망을 일컫는 말)의 길에 올랐다. 무원이 신교를 받든 지 14년이 되는 계해년(1923) 동짓달이다. ❷



무오년인 1918년(음력), 김교헌이 대종교도들을 중심으로 만주 길림에서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서(일명 무오독립선언서)의 사진. 서명자의 맨 앞에 金教獻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다.

세상사는 이야기 | 時論

## 국학 | 과학 | 철학

최윤수(국방과학연구소연구원)

“국학에서는 나라의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라는 보다 정신적인 문사철(文史哲)이 중요하지만 나라에 관계된 다른 여러 가지도 국학에 포함된다.”

국학에서는 나라의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라는 보다 정신적인 문사철(文史哲)이 중요하지만<sup>1)</sup> 나라에 관계된 다른 여러 가지도 국학에 포함된다. 과학은 우리 몸과 우주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에 편리한 이기를 가져다준다. 또한 과학적 사유방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하므로 과학은 문사철과 상호작용을 하며 따라서 국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과학은 역사의 일부이다. 역사

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즉 개인의 역사가 모여 이루어진다고 보면 과학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양태를 바꾸니 당연히 역사의 일부가 된다. 과학이 만들어낸 물건들, 과학적 방법으로 생각하며 과학의 결과물들을 사용해서 생활하는 사람들, 과학 자체의 역사 등 과학의 모든 것이 역사의 일부로 포함된다.

과학적 사유방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하므로 과학은 문사철과 상호작용을 하며 따라서 국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과학은 철학과 종교와도 영향을 주고 받는다. 고대에는 과학과 철학이 구분되지 않아서 철학자가 과학자이기도 했다. 과학과 철학이 분리된 때에도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철학에 과학적 현상들이 반영되어왔다. 과학적 사유 방식은 철학에 영향을 미쳐 과학철학이나 분석철학 등이 생겨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과학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된 적이 많았다. 종교인이나 특정 종교가 그들이 누리던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그들의 도그마를 바로잡는 과학을 억누른 것이다. 종교와 과학은 엄밀하게 말하면 싸우지 않

1) 김동환, 「우리 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 『알소리』 1, 한뿌리, 2006.

는다. 둘은 원래 성품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오므로 사람은 종교를 가지면서 과학을 한다.

과학이 인간의 사상과 정서에 호소하는 문학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 같으나 과학의 발달은 문학에 영향을 주어왔다. 인쇄기와 타자기, 전화기, 영상물 등의 발명품들은 문학에 새로운 장르를 추가했으며 대중들이 문학에 접할 수 있게 했고 더 많은 작가들이 활동하게 했다. 빠른 이동 수단은 작가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세계를 보게 하고 과학 지식은 문학작품 내용을 다양화시켰다. 요즘에는 인터넷과 전자매체의 발달로 전자책이 보급되고 있어서 작가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값싼 대중매체를 접하는 젊은이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쉽고 얕은 지식의 습득에만 몰두하여 깊은 사유에서 얻어지는 지식이나 지혜가 모자란다는 말들도 한다.

이렇게 국학과 연관되는 과학은 나라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과학은 생산력을 증대시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재난이 닥칠 때 그 재난을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외적이 침입해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을 때는 과학은 나라를 지키는 도구가 된다. 요즘 주변국들의 과학기

술이 날로 발달하여 나라방위를 염려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위협이 조석으로 피부에 와 닿는다. 중국의 우주기술 발전과 항공모함 건조, 북한의 군사기술, 일본인들의 노벨상 수상 등의 소리가 들려오면 우리나라도 보다 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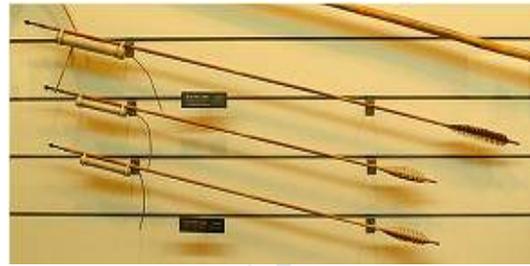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 나라의 경제와 과학이 주변국들보다 발전하게 되면 그 나라는 체제를 정비하면서 이웃 지역들을 병합하기 시작하여 보다 큰 나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 나라는 주변국의 과학 발전을 예의 주시하고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

먼 나라를 생각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근현대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주변국 과학발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6.25동란은 남한의 북침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는 과학기술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끝마다 북진하여 통일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발언이고 전혀 현실성이 없는 말이었다. 해방 후 대부분의 공장과 발전소가 북한에 있어서 북한의 과학기술이 남한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김일성은 해방직후 토지개혁을 해서 북한 농민들을 영원한 소작농으로 전락시키면서 농업수확의

40%를 걷어 들었다. 그 결과, 군자금이 충분해서 소련으로부터 최신무기를 수입하고 그 당시 국민당과 전투를 하고 있던 중국 공산당에게 상당한 양의 군수품을 지원해주었다. 반면에 남한은 경공업이 약간 발달했고 생필품 등을 미국의 구호품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때 미국이 한국에서 병력을 감축하고 에치슨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발언을 해서 남로당과 연계한 북한은 마음 놓고 남침한 것이다.

1800년대에 일본은 유럽의 과학을 도입하여 중국이나 한국 등 아시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과학이 앞서게 되어 동아시아의 패자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한일 병탄이라는 치욕을 겪었다. 1500년대에 일본은 서양의 과학을 수용하고 조총을 들고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은 모진 살육과 수난을 당했으며 그 후 사회가 크게 변하게 되었다. 청나라는 부족국가에서 발흥하여 당시의 과학적인 무기를 도입하여 중국을 병합했고 그 와중에 우수한 대포를 우리나라에 끌고 와 병자호란 등을 일으켜 우리겨레에게 큰 굴욕을 주었다.

세종 시대에 대마도를 정벌하러 원정대를 보낸 것은 그 당시의 한국 과학 수준이 세계 적인 수준이어서 가능한 일이



조선시대에 제작된 로켓 화기인 신기전(神機箭)의 모습

었다. 신기전과 천자총통 등의 대포들을 포함한 무기들을 개발해서 남과 북의 경계를 편안하게 했다. 임진왜란 때 그 대포기술로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쳤지만 대원군 시대까지도 그 대포를 사용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세종은 농사 직설을 간행하고 농업생산을 크게 증대시켰으며 역사에서도 신라 위주의 사관을 고구려와 백제도 중요하다고 하는 삼국사관으로 바로 잡은 임금이며 북으로 6진을 개척하여 현재의 한반도 국경을 결정지었다. 우리글인 한글을 창제하여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어느 학자가 연구한 바로는 세종 시대의 과학적 성과가 그 당시 세계의 과학적 성과의 거의 50%를 차지한다고 한다.

우리에게 문명의 이기를 주는 과학은 아쉽게도 전쟁과 함께 발전되어 왔다.<sup>2)</sup>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러 개로 나뉘어진

2) 어니스트 볼크먼 등, 『전쟁과 과학 그 야합의 역사』, 이마고, 2003.



세종 25년(1443)에 창제된 훈민정음

도시국가들이 그들 간에 또 페르시아 등 외부 세력과 늘 전쟁을 하면서 무기와 과학을 발전시켰다.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하면서 전쟁과학을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알렉산드리아에 거대한 도서관과 대학을 설립하였다. 그래서 거의 모든 과학의 뿌리는 전쟁무기의 연구에 두고 있다고 한다. '엔진'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로 '무기의 총괄'이란 뜻이었고 엔지니어는 그런 사람이다. 고대 로마는 전쟁을 하면서 응용과학을 발전시켰다. 근대 유럽에서는 각 나라가 경쟁적으로 군사와 과학을 발전시켜가며 수 백 년 간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다. 학교 교과서는 인쇄술의 발전이 종교개혁을 낳게 했다고만 말할 수밖에 없지만 금속활자는 종교 서적과 함께 전쟁 서적도 대량으로 유포시켰다. 20세기에는 양대 전쟁을 치루면서 나라들은 단기간에

혁신적인 기계들을 발명해냈다. 그렇다고 전쟁하는 나라들이 종교를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믿는 종교의 교리는 평화를 부르짖고 불우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먹느냐 먹히느냐의 경쟁 체제가 나라들을 전쟁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한 지역이 하나의 큰 나라에 의해 평정되고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되면 과학발전은 멈추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퇴보하게 된다. 왜냐하면 지배층은 새로운 현상이 발견되거나 기계가 발명되어 사회에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과 이슬람 제국의 경우가 그렇고 중세 유럽의 경우에도 교회가 권력을 장악해 나라들 위에 군림했을 때는 과학 발전이 멈췄다. 교권이 약해진 근대 초기부터 분열 경쟁하는 유럽 국가들에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에서도 한 기업이 어느 제품을 독점하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을 등한시 한다.

현대에는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 기업들의 경쟁으로 다소 상업적인 방법으로 변화되어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도 군사과학은 꾸준하고도 맹렬하게 발달되고 있다. 미국과 구소련의 군비경쟁은 우리가 익히 알거니와 미

국이나 중국의 무시무시한 군사과학은 그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 위에 군림하게 한다. 우리는 동족 국가인 북한의 핵무기나 로켓 등의 군사과학에도 위협을 당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동등하면 나라 사이의 국력에는 양적인 차이가 난다. 즉, 물리적인 국력은 인구나 다른 요소가 많은가 적은가에 따른 양적인 차이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 국력은 선형적인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누적적인 성격을 갖는 과학기술은 물리력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국력에 지수적인 차이를 가져다준다. 그 차이가 크게 되면 국력의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게 된다. 이라크 군이 아무리 사기가 높았다 해도 우주항공과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면서 스마트 무기들로 원하는 표적을 정확히 폭격하는 미국에게 전투에서 패배함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나라 방위를 고려할 때 국학은 과학을 중요시해야 한다. 나라의 학문인 국학은 나라가 없으면 자연히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라 방위를 고려할 때 국학은 과학을 중요시해야 한다. 나라의 학문인 국학은 나라가 없으면 자연히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학서의 대표적인 사례로 유대인의 구약서를 들 수 있다. 구약서는 유대민족의 역사서라기보다 유일신 이데올로기를 강변하는 장대한 사상서 또는 이념서라고 볼 수 있다. 고대 유대인들은 그 책에서 그들의 유일신 사상에 그들의 역사를 미려한 문장으로 윤색하였다. 하느님 사상은 인류보편에게 해당되지만 구약서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선민사상이 있어서 그들의 국학서라고 볼 수 있다.

구약서가 쓰여진 기원전 700년대는 유대왕 요시야 전후의 시대로 그즈음 비로소 유대의 땅이 넓어져 구약에 묘사된 솔로몬 시대의 나라 크기가 되고 유대문자가 정립되었다. 제사장들과 구약 편집자들은 유일신 사상을 정립하여 그 당시까지의 신앙형태인 다신교를 배척하게 된다. 그들은 구약서에서 유일신을 믿는 왕은 아름다운 말로 찬양하지만 다신교를 허용하는 왕은 큰 벌을 받는 식으로 그들의 역사를 윤색하였다.

지금의 고고학적 장비들은 3000년 전의 유물도 50년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연대를 측정할 수 있고 주변 나라들

의 기록을 참고하여 한 지역의 고대 역사를 고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아브라함이나 야곱 등과 같은 부족장들의 행로는 고고학적으로 밝혀지지 못하며 모세의 출애굽은 실제 역사에서는 증빙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다윗과 솔로몬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중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고원지대의 부족국가의 부족장 정도로 고증되고 있다.<sup>3)</sup>

구약서를 구심점으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이 책은 하느님을 믿으면 어떠한 고난에서도 헤어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어왔다. 그러나 이 국학서에 과학이 빠졌기 때문에 고대 유대인들은 보다 과학이 우수한 주변국에 의해 결국 망했다. 그들은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실제 역사까지도 왜곡되게 서술하였으니 과학이 고려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지금의 유대인은 종교생활도 잘 하면서 과학도 세계에서 가장 잘 하는 민족이어서 그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유대인이 학문을 잘 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구약서를 토론하며 학문을 숭상하는 분위기에서 자라기 때문이라고 한

다. 그들은 결혼할 때도 부잣집 아들을 원하는 것보다는 가난한 학자를 원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은 진리탐구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가장 오래된 구약성서 사본으로 알려진 '사해사본'의 모습

우리는 나라와 국학을 지키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이 세균으로부터 스스로를 얼마나 과학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sup>4)</sup> 피부는 5 층의 각질로 덮여있어 세균은 결코 피부를 뚫고 몸속으로 침투할 수 없다. 입으로 들어가는 세균은 침속의 프티알린에 의해 일차 공격당하고 위에서 강한 산성에 의해 멸균되며 외부에 노출되는 눈, 귀 등의 분비물에도 멸균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입과 기도를 통해 혹시 몸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세균은

3) 이스라엘 핑켈스타인 등,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까치, 2002.

4) 매리언 켄들, 이성호 역, 『세포전쟁』, 궁리, 2004.

목구멍 주위의 수문장인 목 임파선의 면역체계에 의해 공격받으며 몸에 들어온 세포들은 백혈구와 림프구, 대식세포 등에 의해 포식된다. 또한 몸 안에 들어온 이종의 세포도 공격당해 죽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도 과학을 발전시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침략을 최대한 방어해야 된다. 이는 상대방의 과오나 허물을 바로잡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작용도 한다. 힘을 믿고 욕심을 부려 이웃을 침략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한국혼(痛言)』이란 저술에서,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의 하나를 선열들의 功烈과 利器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외쳐댄 예관 신규식의 모습

인류에게 비극을 주는 전쟁은 크나

작으나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세력균형이 깨지면 조그마한 핑계거리로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사람들이 삼일신고와 같은 좋은 경전이 가르치는 영원한 진리를 귀담아 듣고 서로 이해하는 폭을 넓히면 과학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경전인 삼일신고<sup>5)</sup>는 하느님이 사람에게 성품 등의 세 참을 주었고 사람은 그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한다. 이 성품은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바인 도덕적 소당연(所當然)이 되고 사물과 물질에서는 그러한 바인 소이연(所以然)이 된다. 그러므로 삼일신고는 우리에게 내적으로 성품을 닦는 종교적 공부와 함과 동시에 외적으로는 세상과 우주의 성품을 이해하는 과학을 연구하라고 하는 것이다. ❷

5) 대종교, 「삼일신고」, 『대종교경전』, 2002.

THE INSTITUTE OF KOREANOLGY

# 김교헌 민족사학의 의의(1)

-『檀祖事攷』를 중심으로-

김동환(사)국학연구소연구원

## 1. 들어가는 말

역사란 인간사회의 변천 및 발전의 과정을 기록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국사란 한 나라의 인간사에 대한 변천과 발전을 기록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역사를 기록함에 객관적 사실이 중시되는 만큼 관점과 해석을 외면할 수 없듯이, 국사를 정리함에도 가치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국사 또한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둔 연구를 통하여 많은 공시적 지평을 넓혀 왔을 뿐만 아니라, 양적인 누적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 민족사의 변천 속에 감추어진 많은 우여곡절에 대한 고민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잣대에 밀려 민족사의 전면에

서 외면된 것도 적지 않다. 특히 상고사에 대한 한국사학계의 홀대는, 관점과 해석이라는 가치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고 사관(史觀)의 다양성을 통한 학문적 탄력성마저 정지시켜 버렸다. 그 상고사의 중심에 서있는 단군이란 존재 역시,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 가장 넓은 외연적 상징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한민족 사교의 홀로그램으로 전락시킨 것이 우리 사학계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단군은 무엇인가. 일부 지식인들은 그것이 국수주의의 상징이요 폐쇄주의의 경험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탈민족적 세계화의 시대를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존재라고도 외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 속에서 단군이라는 존재가 국수주의나 폐쇄주의

의 탈을 쓰고 행세한 적은 결코 없었다. 단군이라는 의미가 세계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논리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세계화란 우리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단군은 민족적 구난(救難)의 상징적 존재였다. 일연의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사화가 대몽항쟁 상징적 가치에서도 국수(國粹)가 아닌 자주(自主)의 정신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조선조의 단군존숭의 전통이 폐쇄가 아닌 정체성(正體性) 확인의 발로라는 것도 이미 확인된 바다. 양란(兩亂) 이후 고개를 든 단군에 대한 역사 의식 역시, 우리의 자주성에 눈뜨고자 했던 반존화주의(反尊華主義的) 열망에서 발아된 것이다.

한말 대종교의 등장 역시 이것과 무관치 않다. 전래의 고신교(古神敎)인 단군 신앙의 중흥을 내걸고 출발한 대종교의 명분이 ‘국망도존(國亡道存:나라는 망했어도 정신은 존재한다)’이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신을 올바로 세우면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외침이다. 그 정신의 중심이 단군이었다. 일제치하에 대종교도들이 정치, 외교, 문화, 무력투쟁을 통해 총체적 저항을 할 수

**우리에게 있어 단군은 민족적 구난의 상징적 존재였다. 일연의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사화가 대몽항쟁 상징적 가치에서도 국수(國粹)가 아닌 자주(自主)의 정신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조선조의 단군존숭의 전통이 폐쇄가 아닌 정체성 확인의 발로라는 것도 이미 확인된 바다. 양란 이후 고개를 든 단군에 대한 역사 의식 역시, 우리의 자주성에 눈뜨고자 했던 반존화주의(反尊華主義的) 열망에서 발아된 것이다.**

있었던 것도 단군의 힘이었으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사봉공한 것도 단군에 기대어 나타난 힘이었다. 빼앗긴 나라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국수주의라 한다면 분명한 잘못이다. 무너진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려 함을 폐쇄주의라 한다면 그 또한 분명 망발이다.

이러한 단군에 대한 역사, 문화적 의미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이 김교헌이다. 김교헌은 1910년 대종교에 입교한 인물로서, 후일 대종교 중광 2세 교

주를 역임한다. 특히 1910년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 활동을 이끌면서 고전(古典)과 사서(史書)의 수집·간행 및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이다. 최남선·장지연·유근·신채호 등도 이 당시 김교헌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으며 민족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 갔다. 광문회에서 김교헌의 가문에 역대로 수집·소장되어 오던 방대한 양의 서책과 문헌이 중요하게 활용되었고 후일 그 책들은 최남선이 보관하다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기증되었다.<sup>1)</sup>

김교헌은 18세(1885)에 문과에 급제한 뒤, 승문원 부정자(副正字), 성균관 전적(典籍:1887), 사간원 정언(正言:1887), 규장각 직각(直閣:1888), 홍음관 응교(應敎:1888), 홍문관 수찬(修撰:1892), 예조 참의(1892), 성균관 대사성(大司成:1892)까지 오른 인물이다. 이어 27세 되던 갑오경장(1894) 이후에는 외무아문(外務衙門)의 참의 겸 회계국장을 거쳐, 외부(外部) 참서관(參書官:1895), 법부(法部) 참서관 겸 고등재판소 판사(判事:1896) 그리고 중추원 의관(議官:1897)을 역임했다. 31세 되던 1898년에는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만민공동회의 대표회원 및 부회장 또는 회장 대리직을 맡으면서 민중

계몽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독립협회 해산 후에는 『문헌비고(文獻備考)』찬집위원(1903)으로 다시 관직에 나갔는데, 그의 민족주의 역사서술가로의 소양이 이때에 자리 잡는 것이다.<sup>2)</sup>



무원 김교헌

김교헌은 을사늑약 이후 동래감리(東萊監理) 겸 부산항재판소 판사(1906), 동래부윤(東萊府尹:1906)으로 재직하였으나, 일제 통감부의 비호 아래 자행된 일본인들의 경제 침략에 맞서 준엄히 징치(懲治)하다가, 친일파 송병준의 무고로

1) 김정신, 「金敎獻 民族史學의 精神的 背景」 『國學研究』제4집, 國學研究所, 1998, p.3

2) 한영우, 「1910年代 李相龍·金敎獻의 民族主義 歷史敍述」 『韓國民族主義歷史學』, 일조각, 1994, pp.94-95참조.

파면되었다. 그 후 신민회가 창설되자 그 회원들과 밀접한 교우를 맺는가 하면, 1909년에는 『국조보감』감인위원(監印委員)과 규장각 부제학에 올라, 후일 신교사관(神敎史觀) 정립의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경술국치 직전인 1910년 1월 15일(중광절)에 대종교에 귀의하면서 본격적인 민족주의적 신교사관 정립에 뛰어드는 것이다.<sup>3)</sup>

김교헌의 역사의식은 그가 중심이 되어 엮은 『단조사고』를 비롯하여, 『신단민사(神壇民史)』, 『신단실기(神壇實記)』, 『배달족역사(倍達族歷史)』 등에 잘 나타나 있다.<sup>4)</sup> 『신단민사』, 『신단실기』, 『배달족역사』에서 대종교의 역사적 원형인 신교사관(神敎史觀)을 정립한다. 『신단민사』에서는 우리 단군민족의 혈통의 흐름을 대종교의 경전인 『신사기(神事記)』와 같은 구족설(九族說)에 그 근원을 찾음과 함께, 역사적 강역인식에서는 대륙을 주요 활동무대로 설정하여 고조선부터 조선조까지 철저하게 대륙적 인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까닭에 고려와 조선시대도 여요시대(麗遼時代), 여금시대(麗金時代), 조청시대(朝淸時代)로 서술하고 있다. 그

리고 신교문화에 대해 단군의 오훈(五訓)을 시작으로 역대국가들의 제천행사를 밝힘과 함께 구서(九誓), 오계(五戒), 팔관(八關)의 의미를 구명한은 물론, 대종교의 역대 교명(敎名)을 설명함으로써 민족문화의 고유성과 공유성(公有性), 전통성, 자주성을 강조한다. 『신단실기』에서도 단군에 대한 사적(事蹟)과 신교사상에 대한 자취를 모아 자료집의 성격으로 정리해 놓았으며, 『배달족역사』는 김교헌이 교열(校閱)한 것을 대한민국상해임시정부가 발간한 것으로, 『신단민사』의 굵은 줄기만을 간추려 놓은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책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의 책 제목으로 사용된 '신단(神壇)'이라는 명칭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성격을 강하게 보여 주는 용어로, 삼신일체(三神一體)인 하느님의 교화와 치화를 받은 민족인 천민(天民), 천손(天孫)의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뜻이 담겨있다.<sup>5)</sup> 그리고 김교헌 신교사관의 이러한 역사정신의 흐름이 바로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안재홍 등의 대종교계 민족사학자들의 역사정신에도 그대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근대 최초로 집성한 『단조사고』라는 자료집이다. 한국 근대사학

3) 같은 글, p.95참조.

4) 한편 김교헌은 『진단사승(震旦史乘)』이라는 역사서도 작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원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조완구, 「重版序言」 『神壇民史』, 대종교총본사, 1946, p.2.)

5) 김정신, 앞의 글, p.18.

사에서 볼 때, 단군 자료를 모은 최초의 사서라는데 의미가 크다. 이 책은 역사 속에 흩어진 단군의 흔적들을 정성스레 모은 것으로, 관찬사서(官撰史書)로부터 패사(稗史:민간재야사서)에 이르기까지 총망라되었다. 단군이 탄생하여 우화(羽化)할 때까지의 업적과 단군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결된 문화적 자취까지 낱낱이 나타난다. 까닭에 『단조사고』는 단군과 관련된 역사서요 문화서인 동시에 종교서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단조사고』는 대종교협제회(大倥敎協濟會)의 명의로 1911년경에 발행된 단군 자료집이다. 이 책 역시 근대 단군을 중심으로 다룬 본격적인 역사서로, 김교헌의 저술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역할이 지대했다. 당시 대종교교사 정리의 중심에 있었던 김교헌은, 과거『문헌비고』찬집위원이나 『국조보감』감인위원 및 규장각 부제학을 역임한 경험이, 그의 단군 역사 정리에 중요한 토대가 된 것이다.

더욱이 『단조사고』는, 나철이 백봉교단으로부터 전수 받은 『신사기(神事記)』와 『단군교오대종지서(檀君敎五大宗旨書)』이후, 대종교교사로서는 처음 정리된 역사서이기도 하다. 즉 나철이 1909년 대종교를 중광한 이후 처음으로 정리한 교사(敎史)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

조사고』 본문의 첫 내용도 나철의 연구물(「神理」)을 인용하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조사고』가 철저한 신교사관 즉 대종교사관이라는 정신적 토대 위에 엮어졌음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배경을 감안하면서, 김교헌의 많은 역사서 가운데 『단조사고』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즉 『단조사고』가 담고 있는 정신을 옅게 해석하고, 『단조사고』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더불어 출간의 정확한 시기, 그리고 김교헌이 중심이 되어 저술되는 배경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이 책의 체재와 내용의 분석을 통해 그 가치를 정확히 음미함과 아울러, 『단조사고』에 담긴 김교헌 민족사학의 의의를 정리해 볼 것이다.

## 2. 김교헌 민족사학의 의의

### (1) 『단조사고』의 출간 경위

#### 1) 출간시기와 판본에 관한 문제

먼저 『단조사고』가 언제 나왔느냐는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단조사고』의 원본에 정확한 출간 연월일이 적혀 있지 않

기 때문이다. 또한 해방 후인 1948년, 『단조사고』의 ‘우리말토씨본(필사본)’을 엮은 윤세복이 『단조사고』의 출간이 1915년(乙卯年)이라고 적었으며,<sup>6)</sup> 1953년 ‘한글번역본(필사본)’을 내면서도 마지막에서 그 등인(騰印) 일자를 1915년으로 적었다가 지우고 다시 1911년으로 고친 흔적이 발견된다.<sup>7)</sup> 더욱이 ‘고려대학교최남선문고본(등록번호:463006685/청구기호:육당C16A1)’의 겉표지에 『단조사고』라는 제목과 함께 1912년 7월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상황은 『단조사고』가 1911년이 아닌 그 후에 발간되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sup>8)</sup> 빌미를 주었다.

그러나 『단조사고』는 박은식이 저술한 『대동고대사론』, 『동명성왕실기』, 『천개소문전』, 『명림답부전』, 『발해태조건국지』, 『몽배금태조』 등이 발간될 시기인 1911년에 함께 출간된 것이다. 우선 윤세복이 『단조사고』가 1911년에 출간되었을 것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윤세복은 그 근거로 『단조사고』에서 홍암 나철의 「신리(神理)」를 인용했는

데, 그 「신리」라는 글이 1911년 1월 15일(음력)에 만들어졌음을 제기하고 있다. 윤세복이 그의 한글번역본에서 1911년으로 정정하기 전, 1915년으로 적었던 것도 이 「신리」에 대한 혼돈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신리」는 완성본이 아니라, 후일 나철이 완성하는 「신리대전(神理大畵)」의 기초본인데, 이 「신리」와 「신리대전」을 착각한데서 기인한 듯하다.

대종교의 기록에서도 나철의 「신리대전」이 1911년 1월 15일(음력)에 완성되었다고 적고 있다.<sup>9)</sup> 이 또한 「신리」를 「신리대전」으로 착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철의 「신리대전」은 나철이 순교(1916년 8월 15일-음력)하기 전까지 완성·출간되지 않은 것으로, 나철이 순교한 후 무원 김교헌이 출간(1917년 7월 16일-음력)한 것이다. 따라서 1911년 1월 15일에 출간된 「신리」는 「신리대전」과는 다른 것으로, 더 정확히 말한다면 「대종교신리(大倥敎神理)」라는 명칭으로 등인(騰印)된 책이다. 이 책 역시 앞서 언급한 고려대학교 최남선문고본에 겉표지 『단조사고』라고 적힌 책자에 합본되어 있다. 「대종교신리」라는 큰 제목 안에 ‘신인(神人)’, ‘태백산단목(太白山檀木-사진)’, ‘단군(檀君)’, ‘한배진상(眞象-사진)’.

6) 윤세복, 『역해단조사고(畵)』(필사본), 虛堂藏本, 1948.

7) 윤세복, 『한배일살핌[檀祖事攷]』(필사본), 대종교총본사, 1953.

8) 정옥재, 「〈檀祖事攷〉저술에 관한 검토」 『韓國史學史學報』12, 韓國史學史學會, 2005, p.125.

9) 대종교종경총사편수위원회편, 『대종교중광육십년사』, 대종교총본사, 1971, p.165.

‘삼신(三神)’·‘대종교(大倥敎)’·‘신리계설(神理繫說)’ 등, 일곱 가지를 묶어 하나로 엮은 책이다.

물론 「신리(혹은 대종교신리)」와 「신리대전」은 내용의 완성도에도 큰 차이가 있다. 「신리대전」이 ‘신위(神位)’·‘신도(神道)’·‘신인(神人)’·‘신교(神敎)’라는 나눔으로 체계적 정제를 갖춘 데 비해, 「신리」는 「신리대전」의 초고본으로 비교적 산만하고 비체계적이다. 그러면 나철이 1911년 1월 15일에 「신리」를 초고, 출간하고, 언제 「신리대전」을 완성했는지가 궁금해진다. 아마도 1915년초에서 1916년 초기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나철은 「신리」를 간포한 후 얼마되지 않은 1911년 7월 21일(음력), 국내의 마리산 제천단과 평양의 승령전 참배를 거쳐 바로 만주 화룡현으로 떠났다. 그리고 그가 다시 국내 경성으로 돌아온 것은 1915년 1월 14일(음력)이다.<sup>10)</sup> 나철은 4년 가까이 만주에서 보냈으며, 그 기간에도 만주 지역의 단군 유적 순례<sup>11)</sup> 및 교단 조직 등으로 분주하게 보냈다. 그러므로 나철이 「신리대전」을 정리하여 완성한 시기는 1915년 국내로 돌아온 직후부터 1916년 초기 사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윤세복이 『단조사고』의 간행을 1915년으로 착각했던 이유도 「신리」와 「신리대전」을 구별하지 않고, 「신리대전」의 완성과 연관된 이러한 개연성을 염두해 둔 판단으로 생각한다. 주목되는 것은, 1954년 대종교총본사에서 출판한 『한배일살핌』(檀祖事攷)를 순우리말로 제목을 붙인 것임이란 간행물이다. 이 판본은 박창화가 발행인으로, 윤세복의 「펴는말[序言]」이 실려 있다. 그 「펴는말」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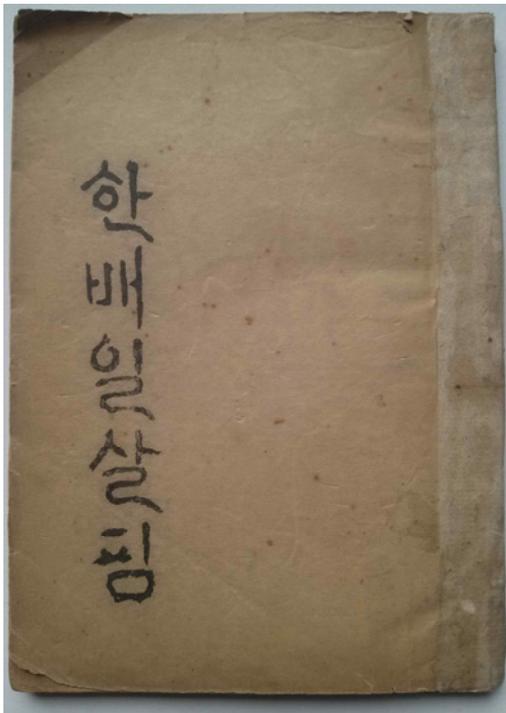
“이미 만주에서 임오교변(壬午敎變)을 겪은 나는, 병술(丙戌:1946년-필자 주) 봄에 빈 몸으로 서울에 돌아와서, 여러 형제들을 반겨 만나면서 남아있는 종경(宗經)을 찾는 가운데 단조사고(檀祖事攷)한 책이 끼였었다. ‘한검바른길[眞倥大道]’이 거듭 빛난 뒤에, 우리 스승님들은 안팎으로 많은 글을 살피시어 이 책을 만드시되, 순한문(純漢文)으로써 대종교에서 지었다고 쓴 등사판(謄寫版)이오, 게다가 ‘대종교협제회(大倥敎協濟會)란 큼직한 도장도 찍혔는 바, 그 박은 때는 적지 않았으나 본 글 첫 줄의 아래에 신리(神理)를 당겨서 풀이하고, 또 그것을 고쳐 적었음을 보면 곧 거듭 빛난 지 세 해인 신해(辛亥:1911년-필자 주) 봄인 듯하다. 왜냐하면 『조천기(朝天記)』에는 ‘한스승님(홍암 나철-필자 주)이 신해 정월에 신

10) 같은 책, pp.165-167참조.

11) 「나철-장지연 서신자료」『국학연구』제8집, 국학연구소, 2003, pp.404-411.

리를 적어 펴셨다'하였고, 그 여섯 해 뒤인 정사(丁巳) 가을에 쓴 신리서(神理書)에는 '책을 박지 못하고 스승님은 돌아가셨다'하였으니, 이로써 을묘·병진 해 짬신리를 고쳐 지으신 것을 알지라.(조천기와 신리서는 모두 茂園 스승님이 쓰신 것임)"<sup>12)</sup>

윤세복이 『단조사고』의 출판 시기를 1911년 봄으로 교정하여 못을 박고 있음이 확인된다.



1954년도에 膾印 출판된 『한배일살핌[檀祖事攷]』 표지 사진

또한 『단조사고』가 1911년에 발간되었다는 증거의 하나로, 그 책의 등사필체

와 등인본의 틀이, 1911년 환인현(당시 회인현)에서 발간된 박은식의 여러 글들과 동일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동일인에 의해 필경되어 동일한 등사틀에서 유인(油印)되었다는 것은, 박은식의 여러 서책들과 동일한 시기에 출간되었음을 말해 준다. 당시 박은식의 저술 가운데, 현재 전해지지 않는 『동명성왕실기』를 제외하고, 그 발간시기를 살펴보면 『천개소문전』과 『명림답부전』이 1911년 9월로 적혀 있고, 『몽배금태조』가 1911년 11월로 되어 있으며, 『대동고대사론』과 『발해태조건국지』는 『단조사고』와 마찬가지로 그 발간시기가 적혀 있지 않다. 그러나 『대동고대사론』과 『발해태조건국지』가 박은식의 다른 저술들과 같은 시기에 출간되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음과 같이, 여러 정황상 『단조사고』가 1911년 9월 이전에 출간된 것으로 봄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능화의 『백교회통(百教會通)』에는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근거가 나오고 있다. 『백교회통』이란 불교를 기준으로 여러 종교를 견준 일종의 비교종교서로서, 불교와 우리 민족의 자생종교에 대해서도 대비시키고 있다. 이능화는 이 글의 제9장 불교와 대종교를 견주는 편에서, 대종교의 교리와 관련하여 『단조사

12) 윤세복, 「펴는말[序言]」 『한배일살핌』(膾印本), 대종교총본사, 1954, p.1.

고』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3)</sup> 그런데 『백교회통』의 「서문」이 1912년 ‘부처님 목욕일(음력 4월 8일)’에 씌어졌음을 이능화 스스로 밝히고 있음을 볼 때,<sup>14)</sup> 이능화는 『단조사고』를 적어도 1912년 초 이전에 이미 보았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단조사고』의 출간은 1911년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단조사고』의 판본에 대하여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현재 알려져 있는 『단조사고』의 판본은 대종교총본사소장본, 한국학중앙연구원본(청구기호: C16-1), 연변대학교소장본<sup>15)</sup>, 고려대학교최남선문고본<sup>16)</sup> 등이 있다고 한다.<sup>17)</sup> 여기에 미국 하버드대학 ‘엔칭도서관소장본’<sup>18)</sup>과 윤세복의 ‘우리말토씨본(1948)’, ‘한글번역본(1953)’, 그리고 대종교총본사에서 간행한 ‘순우리말 제목본(『한배일살핌』)[1954]’ 등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판본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윤세복의 ‘우리말토씨본’과 ‘한글번역본’, 그리고 대종교총본사 간행 ‘순우리말 제목본’을 제외한 모든 판본은, 1911년에 등인된 동일한 판본 혹은 그것을 번역한 필사본(윤세복, 1953)과 등인본(대종교총본사, 1954)에 불과하다.

『백교회통』의 「서문」이 1912년 ‘부처님 목욕일(음력 4월 8일)’에 씌어졌음을 이능화 스스로 밝히고 있음을 볼 때, 이능화는 『단조사고』를 적어도 1912년 초 이전에 이미 보았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단조사고』의 출간은 1911년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려대학교최남선문고본 중 등록번호가 463006685로 매겨진 『단조사고』는 원본 그 자체가 아니다. 겉표지가 『단조사고』라고 적힌 이 책자 속에는, 원본 『단조사고』를 오려붙여 재구성하고, 육필로 첨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 책 속에는 『단조사고』 내용만이 아니라, 석농 유근(柳瑾)의 명의로 발표된 대

13) 이능화(강효중 옮김), 「대종교와 불교의 대조」 『백교회통』, 운주사, 1989, p.157.

14) 같은 책, 「서문」, p.7.

15) 이 판본은 윤병석 교수가 연변대학교도서관에서, 의병장 김정규(金鼎奎)의 문서를 조사하던 중 발견된 것이다. 또한 2003년 발간(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편)된 『백암박은식전서』에 실린 판본은 이 판본을 영인하여 실었다.

16) 고려대학교최남선문고본은 2종류의 『단조사고』가 있다. 청구기호는 동일하게 C16A1로 되어 있지만, 등록번호가 463006685번 하나가 있고 463006686번 또 하나가 있다.

17) 정옥재, 앞의 글, pp.124-125.

18) 이 판본은 불완전한 필사본을 복사한 것으로 써, 중간에 생략과 탈자 등이 많이 발견된다.

종교 종령(宗令:1호에서 8호까지)과 오혁(吳赫:오기호)의 명의로 인쇄된 대종교시교문, 그밖에 대종교규범.대종교세규(大倂敎細規).교직발표건(敎職發表件).공용서식(共用書式).질명서(質明書) 그리고 「대종교신리」등이 합본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서책은 제목만 『단조사고』였지, 실은 1911년대 대종교의 여러 자료를 묶은 개인 소장자료집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단조사고』의 판본을 구태여 말한다면, 1911년에 출간된 ‘등인본(騰印本:원본)’과, 해방 후 윤세복이 필사하여 엮은 ‘우리말토씨본(1948)’. ‘한글번역본(1953)’, 그리고 대종교총본사에서 간행한 ‘순우리말 제목본(1954)’ 등 네 종류라 할 것이다.

## 2) 『단조사고』와 김교헌

『단조사고』의 저자에 대한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2002년 윤병석 교수의 논문<sup>19)</sup>과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에서 전6권으로 간행한 『백암박은식전집(白巖朴殷植全集)』이 나오면서 대두되었다.<sup>20)</sup> 즉 『단조사고』가 백암 박은식

의 저술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 주장의 몇 가지 근거는 이렇다.<sup>21)</sup> 첫째, 박은식의 서거 후 국장(國葬)을 치를 당시, 『독립신문(1925. 11. 11)』 특호 ‘백암선생약력’ 기사에 그의 생전 주요 저술 17종을 소개했는데, 『단조사고』가 그 중 세 번째로 적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해방 후 박은식의 아들인 박시창이, 박은식이 쓴 것을 옮겨 적었다는 「백암박은식선생약력」에 보면 저술의 네 번째로 『단조(檀祖)』라는 명칭이 발견된다. 셋째, 당시 『독립신문』의 경리 겸 사장을 맡았던 김승학이 펴낸 『한국독립사』를 보면, 『단조사고』(김승학의 책에는 『단조사효(檀祖事孝)』로 잘못 적혀 있음)가 박은식의 주요 저술로 적혀 있다.<sup>22)</sup> 넷째, 1912년과 1913년 당시 박은식이 미국에 있는 안창호에게 두 차례 보낸 편지를 보면, 서간도에 머물 당시 여섯 일곱 종류의 책을 지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박은식 저술설에 대해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sup>23)</sup> 그러나 이러한 근거

19) 윤병석, 「朴殷植의 민족운동과 한국사 서술」 『한국사학사학보』제6호, 한국사학사학회, 2002.

20) 윤병석, 「해제」 『백암박은식선생전집(이하 ‘전집’으로 약칭함)』제4권,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2002.

21) 윤병석, 「박은식의 민족운동과 한국사 서술」, 앞의 글, pp.82-83. ; 윤병석, 「해제」, 앞의 글, pp.23-24.

22) 김승학 編, 『韓國獨立史』下, 獨立文化史(增補版), 1970, p.146.

23) 박걸순, 「朴殷植의 古代史認識과 大東史觀」 『白巖學報』제1집, 백암학회, 2006, p.78.

를 통해, 『단조사고』의 저자가 박은식이 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시한 근거는, 박은식의 서거 후 그가 소장하고 있던 그의 여타 저술들과 함께 『단조사고』가 발견됨으로써, 그의 저술인 양 자연스레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동고대사론』, 『동명성왕실기』, 『천개소문전』, 『명림답부전』, 『발해태조건국지』, 『몽배금태조』 등과 같이 『단조사고』가 동일한 필체와 형식을 띤 등인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서지학적 검토 없이 박은식의 저술들로 더불어 취급되었을 개연성은 더욱 크다. 두 번째의 근거 역시 결정적인 이유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즉 후손에 의한 기록이라는 것과 『단조』라고 하는 명칭 역시 불분명하다. 세 번째의 근거는 김승학이 1925년 11월 11일자 <독립신문>에 실린 ‘백암선생약력’을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마지막 근거로 제시한 박은식의 편지 내용 중 ‘육칠종의 저술 운운’ 역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11년 당시 박은식이 보여준 역사인식을 볼 때, 『단조사고』의 내용을 단독으로 꾸민다는 것도 불가능했으리라는 생각이다. 이것은 박은식 역사인식의 변화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이 가는 부분

으로, 1911년 만주로 망명하기 이전까지의 박은식의 역사인식이 유교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음과도 일맥하는 것이다.<sup>24)</sup>

이러한 박은식의 사고는, 『단조사고』의 핵심이 되는 단군에 대한 그의 인식을 보더라도 확연히 알 수 있다. 즉 박은식은 을사늑약(1905년) 이전까지 단군과 연관된 체계적인 글을 단 한 편도 선보이지 못했다. 이것은 1904년도에 정리한 글 속에서 기자(箕子)에 대한 언급만이 나타남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sup>25)</sup> 당시 박은식의 정신적 가치는 유학적 지식인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단군에 대한 인식은 기자에 가려져 드러내지 못한 시기였던 것이다.

박은식은 을사늑약 이후 기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단군과 기자를 병치시키는 기록들을 비로소 선보이고 있는데, 박은식의 단군인식이 본격화되던 시기도 바로 이 시기였다. 이것은 서우학회(후일 서북학회)가 조직(1906)된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서북지방 사람들의 단군·기자·고구려에 대한 강한 문화적 자부심과 연결되는 것이다. 박은식 등 발기인들의 명

24) 김동환, 「박은식 민족사학의 정신적 배경」 『국학연구』 제4집, 국학연구소, 1998 참조.

25) 박은식, 「겸곡문고(흥학설)」 『전집』 제3권, 앞의 책, p.354. ; 박은식, 「겸곡문고(종교설)」, 같은 책, p.369.

의로 발표된 서우학회취지문을 보면, 관서지방이 옛날 단군과 기자의 인문(人文)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라고 밝히고 신문화 또한 이 지방에서 창기(倡起)할 것임을 주창하고 있다.<sup>26)</sup> 이러한 단군과 기자의 병치된 인식은 후일 서북학회로 바뀐 이후에도 확인이 되며,<sup>27)</sup> 단군과 기자의 문화사적 역할의 구분과 더불어 우리 문물의 바탕이 그 곳에서 연원함을 주창하기도 했다.<sup>28)</sup> 이러한 단기적(檀箕的) 역사인식은, 박은식이 관계했던 『황성신문』을 통해서도 1908년 전반까지 꾸준히 나타났다.<sup>29)</sup>

박은식의 이와 같은 인식 변화는, 유교 일변도적인 기자 중심의 사고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단군과 기자를 병치시키고 기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벗어나고자 했던 유교적 굴레 속에 백암 스스로 갇혀 있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시기 박은식의 역사 인식 또한 기본적으로 유교적 애국사상에 바탕을 둔 것으로, 당시 교과

서류에 반영되었던 일반적인 역사인식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sup>30)</sup>

그러므로 박은식의 정신적 변화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은 1910년 경술국치였다. 일제의 강압에 의해 언론기관이 폐쇄되고 서북학회가 해산되면서 그의 삶에 일대 전환을 맞게 된다. 그는 민족사에 대한 각성을 안고 망명을 결심하였던 것이다.<sup>31)</sup> 이 당시까지 박은식의 단군에 대한 표현을 보면, 완전하지 않지만 이미 1908년에 나타나고 있다.<sup>32)</sup> 그는 단군개국(檀君開國)이라는 말을 이때 처음으로 사용하고, 1909년에 들어서는 단군성조(檀君聖祖)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sup>33)</sup> 그러나 그의 이러한 단군 중심의 인식이 곧 탈유교적인 정서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박은식이 1909년 10월까지도 동양의 도(道)를 천인합일로 단정하고 그 흐름을 철저히 중국에서 찾고자 했음을 보더라도 확인되는 부분이다.<sup>34)</sup>

이것은 1909년 9월부터 1910년 6월까지, 『황성신문』의 사장 겸 주필을 맡은

26) 「本會趣旨書」『西友』제1호(1906.12.), pp.1-2.  
 27) 「西北學會趣旨書」(『서북학회월보』 제15호, 1908. 2.), 『전서』제5권, p.378.  
 28) 박은식, 「論說(平壤과 開城의 發達)」(『서우』 제9호, 1907. 8.), 『전서』제5권, p.366.  
 29) 「論說(祝賀海朝新聞)」(『황성신문』1908. 3. 4.)/「論說(朝鮮魂이 稍稍還來乎)」(『황성신문』1908. 3.20.)/「論說(天擇物競에 適者生存論)」(『황성신문』1908. 4. 8.)/「論說(申告海境同胞)」(『황성신문』1908. 4. 10.)

30) 한영우, 「1910년대 박은식의 민족주의사학」 『韓國民族主義 歷史學』, 일조각, 1994, p.126.  
 31) 「年譜」, 앞의 글, p.770.  
 32) 박은식, 「社說」(『서북학회월보』제15호, 1908. 2.), 『전서』제5권, p.384.  
 33) 박은식, 「論說(我西北教育界에 缺憾)」(『서북학회월보』제1권 제14호, 1909. 7.), 『전서』제5권, p.447.  
 34) 박은식, 「講苑(東洋의 道學原流)」(『서북학회월보』제1권 제16호, 1909. 10.), 『전서』제5권, pp.456-457참조.

유근(1861-1921)과 더불어, 그 신문을 통해 단군사상을 제창하고 대중교적 교리와 역사관을 선전.보도했던 박은식이었지만,<sup>35)</sup> 정신적으로 유교를 완전히 벗어 버리고 대중교로 들어오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당시 박은식이 종교적으로 공자의 대동세계를 추구하는 대동교(大同敎) 활동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이것을 뒷받침한다.

박은식이 대중교영향기로 완전히 접어드는 시기는 1911년 망명 전후로 볼 수 있다. 1911년 만주 환인현으로 망명한 그가 본격적으로 대중교 활동에 동참함을 보면 확인된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유교적 기자중심의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 대중교적 단군인식으로 자리 잡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대중교 시교사였던 단애 윤세복(1884-1960)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박은식의 역사 연구가, 유교의 구각을 벗고 대중교적 역사관을 새롭게 보여주는 사론(史論)들이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대동고대사론』, 『동명성왕실기』, 『천개소문전』, 『명림답부전』, 『발해태조건국지』, 『몽배금태조』 등이 그것이다.

이 글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박은식이 이전에는 언급하지 못했던 고대사에 관

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 대중교의 원류가 되는 신교(神敎)와 관련된 인물들이라는 점, 그리고 강역인식에 있어서도 만주를 중심으로 한 대륙사관적인 시각이 뚜렷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sup>36)</sup> 이후 박은식의 역사 서술은, 1925년 11월 최후의 임종까지, 이러한 인식 위에서 전개.정리되었다.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완성 역시 이 정신 속에서 집대성된 것이며, 그의 역사정신의 핵이라 할 수 있는 ‘국혼(國魂)’이라는 개념 또한 대중교의 이음동의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군중심의 사고로 완전히 들어선 박은식은 유교에 대한 인식도 확연히 달라진다. 공자의 도가 아니면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외쳤던 그가, 공자를 화인(華人)으로 단정하고 공자의 가르침에 앞서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의리라고 돌변하는 것이다.<sup>37)</sup> 그러면서 박은식은 과거 중화주의에 함몰되었던 자신의 삶을 속죄하고 유교의 잘못된 면을 통렬하게

35) 이광린, 「《항성신문》연구」『동방학지』제53호, 연세대동양학연구소, 1983, pp.28-30참조.

36) 망명 이전의 박은식은,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한 삼천리 강역의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社說」(『서우』제1호, 1906. 1.) / 「大韓精神」(『대한자강회월보』제1호, 1906. 7.) / 「謝布哇同胞」(『대한자강회월보』제5호, 1906. 11.) / 「悲喜」(『서우』제4호, 1907. 3.) / 「大韓精神의 血書」(『대한매일신보』, 1907. 9. 25.) / 「本會第一回紀念祝辭」(『서북학회월보』제1권 제9호, 1909. 2.) 外

37) 박은식, 「몽배금태조」『전서』제4권, 앞의 책, p.183.

공박하면서 당대의 유생(儒生)들을 실제의 삶과는 동떨어진 자들이요 세상을 속이는 도둑들이라고까지 낙인찍었다.<sup>38)</sup>

한마디로 박은식은 유교적 가치에 대한 환멸을 넘어, 유교야말로 자존과 독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가치로 규정한다. 이것은 박은식 스스로 보면 인생 후반에 깨달은 중화적 가치에 대한 단절의 외침이었던 동시에, 민족으로서는 오랜 세월 흘러온 중국 노예로서의 역사에 대한 회개의 통곡이기도 했다.<sup>39)</sup>

이러한 정황으로 보면, 박은식이 만주로 망명하자마자 『단조사고』를 개인적으로 저술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대종교와 관계를 맺고 대종교의 루트를 통하여 만주로 망명하면서, 대종교의 일원으로 『단조사고』를 편찬에 참여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다음에 기술하는 일련의 상황들이 그것을 말해 준다.

박은식은 1911년 이전에 이미 대종교를 깊이 체득했다. 그의 절친한 정신적 동지이자 대종교의 핵심에 있었던 석농 유근과의 친분을 보더라도 쉽게 유추된다. 박은식은 유근과 일찍부터 교분을 쌓고 더불어 글도 씀은 물론,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공무(公務)에 임했다. 또한 두 살 차이인 박은식(1859년 생)과 유근(1861년 생)은 서로 이 놈 저 놈하며 지낼 만큼 격이 없는 사이였다.<sup>40)</sup>

박은식과 막역지우였던 유근은 대종교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깊숙이 참여했는데, 그는 대종교야말로 조선인들의 식량(食糧)과 같은 종교라고 인식했으며, 대종교의 경험을 통해 그의 조선학적 소양을 더욱 깊게 만들어 간 인물이었다.<sup>41)</sup> 특히 유근이 1906년 9월부터 1910년 6월까지 『황성신문』사장을 맡아 이끌어간 기간은,<sup>42)</sup> 박은식에 있어서는 단군과 대종교의 인식을 체계화시키는데 중요한 기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박은식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하나는, 1910년 10월에 출범하는 조선광문회다. 조선광문회는 대다수가 대종교의 신자들로서, 대종교의 문화적 공동체라 할 수 있을 만큼 대종교적 구국이념이 나타나는 단체였기 때문이다.<sup>43)</sup> 박은식과 유근은, 후일 대종교 2세 교주가 되는 김교헌(1868-1923)과 함께 이 조선광문회의 고문으로 참여하는데, 박은식이 조선광문회 활동을 통해서도 대종교적

38) 박은식, 같은 글, p.181.

39) 김동환, 「박은식 민족사학의 정신적 배경」, 앞의 글, p.75.

40) 권덕규, 「石農先生과 歷史證言」 『隨筆集-乙支文德』, 정음사, 1946, pp.28-29참조.

41) 같은 글, pp.31-32.

42) 이광린, 앞의 글, pp.28-30참조.

43) 오영섭, 「조선광문회 연구」 『韓國史學史學報』 3, 2001, p.110참조.

정서를 많이 체득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한편 유근은 7년 연하인 김교헌(1868년 생)과도 남다른 사이였다. 인간 관계로서도 형제 이상이었고 대종교의 업무에서도 친형제처럼 의지했다고 한다.<sup>44)</sup> 후일 대종교 2세 교주까지 역임한 김교헌은 『증보문헌비고』 편집위원 및 『국조보감』감인위원(監印委員)을 역임한 당대 최고의 학자로서, 1910년 1월 대종교에 입교한 인물이었다. 김교헌의 집은 조선 조 영조 때에 나라에서 하사 받아 내려온 것으로, 왕자궁(王子宮)으로 쓰이던 삼백여 칸에 이르는 대저택(현재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조계사 자리)이었다. 이 저택에 소장되었던 서책과 문헌 또한 김교헌의 선조들이 여러 대에 걸쳐 마련한 것으로 막대한 양이 있었으며, 조선광문회 활동에 중요하게 활용되었다.<sup>45)</sup>

후일 백연 김두봉(1890-?)이 김교헌의 죽음을 추모한 글에서, “오늘날의 우리가 이만치라도 歷史에 대한 생각을 가진 것은 모다 이 어른의 공이라 할 것이니, 그 공의 큰 것은 중국의 司馬遷이 세운 공보다 더 큰 것이다.”<sup>46)</sup>라고 적고 있다.

44) 권덕규, 앞의 글, p.46.

45) 김정신, 「김교헌 사학의 정신적 배경」 『國學研究』 제4집, 앞의 책, p.3.

46) 『동아일보』에 「故金茂園追悼式 일월 십삼일에 상해에서 열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를, 김정신의 논문(「김교헌 민족사학의 정신적 배

한마디로 김교헌의 역사적 공적이 중국의 사마천에 능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에서 보면, 박은식은 유근 뿐만이 아니라 김교헌과도 깊이 교류하면서 단군과 대종교에 대한 역사적 소양을 더욱 깊고 넓게 키워 간 듯하다.

박은식이 『한국통사』를 완성함에 있어서도 유근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적지 않았다는 증언이 주목을 끈다.<sup>47)</sup> 이것은 백암의 저술인 『한국통사』에 유근이 많은 역할을 하였다는 의미를 떠나서, 자료의 긴밀한 부탁도 꺼리지 않았던 박은식과 유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암시받을 수 있으며, 박은식의 학문에 유근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아무튼 박은식과 유근, 그리고 유근과 김교헌의 관계 속에서, 세 사람의 긴밀한 정신적 교감이 쉽게 유추된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박은식이 1911년 만주 환인현에 있는 대종교시교당으로 망명을 택하게 되는 필연적 노정과도 직결되고 있다. 1911년 당시 경성의 대종교총본사의 직무를 김교헌과 유근이 맡고 있었고 만주와의 인적 왕래 역시 이들이 깊이 관여하여 논의했다. 해방 후 대종교 총천교(교주)를 역임했던 지산 정원택

경」, 앞의 글, p.12.)에서 재인용함.

47) 권덕규, 앞의 글, pp.46-47.

(1890-1971)이 1911년 북간도로 옮겨갈 당시도, 대종교총본사를 이끌고 있던 김교헌·유근과 긴밀한 상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다음 기록이 주목된다.

“(1911년 11월 29일) 저녁에 대종교총본사로 김교헌·유근 양선생에게 북간도로 떠날 방안을 토의하여, 가는 도중에 방문할 곳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sup>48)</sup>

이 기록은 박은식이 윤세복이 있는 만주 환인현으로 떠나게 되는 과정에서, 유근과 김교헌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필연성을 그대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더욱이 박은식과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더욱 치밀하고 계획적인 의도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즉 대종교 조직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박은식의 망명이 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유근의 만주에 대한 평소의 인식을 나타내는 다음의 글을 보면, 만주가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대종교의 정신적 근거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先生(유 근-인용자 주)은 가끔 滿洲를 이야기하였다. 그 속에 무슨 뜻이 있었는데는 모르되 그의 말씀은 이러하였다. 사람이 널리 놀아야 뜻이 갑갑지 아니하며 사

람이 커지는 것이다.工夫도 그러하고 일도 그러하다. 더욱이 만주는 우리 祖上이 뒤굴근 데로, 우리 大倭이 베푼신 데라. 이것을 모르는 세상의 어린이들은 이 곳을 생각에 걸지도 아니하지마는, 所謂 文字하는 뜻있는 사람으로 저 컴컴한 구덩이를 그냥 버려둘 수가 있나 하였으니, 곰곰이 말을 캐어본다면 그 뜻의 凡然치 아니함을 여러 方面으로 짐작할 것이다.”<sup>49)</sup>

유근의 이러한 인식은 박은식의 인식과도 다르지 않았다. 망명 후 박은식이 저술한 여러 편의 사론(史論)들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박은식이 망명 이전에 이미 대종교에 입교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박은식은 대종교의 중심인물들이었던 유근·김교헌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유교적 역사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대종교적 역사인식의 구도를 이미 세웠고, 대종교의 입교와 함께 만주로 망명하여 대종교적 역사인식을 토대로 한 여러 편의 글을 완성했다는 논리가 쉽게 유추되는 것이다.

또한 만주시절 박은식의 후견인이었던 윤세복은, 1910년 12월 흥암 나철에게 감화되어 대종교에 입교한 인물이다. 1911년 초에 참교의 교질과 시교사(施教

48) 정원택(홍순옥 편), 『志山外遊日誌』, 탐구당, 1983, p.23.

49) 권덕규, 앞의 글, pp.48-49.

師)의 성직을 받고 만주포교의 명을 받는데, 곧바로 만주 환인에 이동 정착하였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나철의 유훈(遺訓)인 ‘국수망이도가존(國雖亡而道可存: 나라는 비록 망했으나 정신은 가히 존재한다)’이라는 가치를 품고 살았다.

공교롭게도 박은식 망명 초기인 1911년 저술들을 윤세복이 열(閱)을 했다. 즉 박은식의 사상적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몽배금태조』, 『명림답부전』, 『천개소문전』, 『대동고대사론』, 『발해태조건국지』 등의 열(閱)을 윤세복이 했다는 것은, 대종교와 박은식의 교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며 박은식과 윤세복의 절친한 관계를 말해 주는 근거이다. 윤세복이 “無恥生(박은식의 별호 중의 하나)은 우리 무리의 長老다.”<sup>50)</sup>라고 밝힌 것처럼, 백암은 1911년 환인현 거주 당시 대종교의 중진으로 대접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박은식 스스로가 자신의 글에서, 윤세복이 열(閱)한 소감을

“檀庵生(윤세복을 말함-인용자 주)은 말한다. “卓異한 견해와 정확한 史論은 실로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文字로, 산을 개척한 大斧로 한 번 龍門을 찍어 黃河의 물이 비로소 옛 물길로 흐르는 것과 같다.

50) 윤세복, 「夢拜金太祖序」『전집』제4권, 앞의 책, p.167.

宗旨의 간절하고 중요한 것을 모아 제시한다면, 우리 大東民族이 우리의 神聖한 宗教를 보존하고 우리의 신성한 역사를 발휘하여 정신을 둘 곳이 만고토록 오직 한결같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라, 하늘이 선생을 태어나시게 하신 것은 우리 민족을 행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檀庵生(檀崖生의 誤字인 듯 함-인용자 주)<sup>51)</sup>은 말한다. “천고의 새로운 논조를 창조하셨고 천고에 미결인 史案을 결말지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작업인가. 하물며 종교와 역사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니, 어리석은 나는 이 책을 읽고 책상을 치며 크게 부르짖었다. ‘우리 단군의 신성한 후예 삼천만 형제들이여!’”<sup>52)</sup>

라고 기록했다는 점은 박은식 후견자로서의 윤세복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유근.김교헌과의 정서적 일체감 속에서 단군과 대종교에 대한 신념을 정착시킨 박은식은, 만주 망명의 이후에 더욱 대종교와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망명 직전 대종교 입교 가능

51) 대종교에서 檀庵이라는 호를 가진 사람은 이용태(1890-1964)라는 인물밖에 없다. 그러나 이용태는 1928년 대종교에 입교하여, 만주에서의 대종교 활동을 1939년부터 본격화한 인물이다. 따라서 여기에 기록된 檀庵이라는 호칭은 윤세복의 호인 檀崖의 표기 잘못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52) 박은식, 「大東古代史論」『전집』제4권, 앞의 책, p.393.

성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여 윤세복의 도움으로 대중교적 성격의 저술활동을 본격화한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살피면 『단조사고』의 저자가 누구인지 쉽게 유추가 간다. 즉 『단조사고』는 단군의 행적과 유적에 관한 자료집으로써, 대중교가 일어난 직후부터 대중교단 차원에서 진행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 중심 인물이 김교헌이며, 박은식·유근 등이 함께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책 최초의 판본이, 『대동고대사론』·『동명성왕실기』·『천개소문전』·『명림답부전』·『발해태조건국지』·『몽배금태조』등과 동일한 글자체의 등사본으로 출간되었다. 이것은 『단조사고』가 열거한 책들과 같은 시기에 나온 것임을 말해 주는데, 모두 박은식의 저작으로 되어있으나 『단조사고』만이 박은식이 아닌 대중교편으로 출간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출간 당시부터 『단조사고』 저자가 대중교편으로 적혀 있다는 것은, 이 책의 또 다른 저자에 대해 운운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것도 내편과 외편으로 엮어져 있는 『단조사고』를 보면 저자에 관한 기록이 두 번이나 나타나고 있다. 즉 내편의 맨 앞에 저자가 대중교편으로 적혀 있고 외편 맨 앞에도

대중교편으로 저자가 다시 적혀 있음을 볼 때, 『단조사고』의 저자가 대중교라는 것은 더욱 분명해 지는 것이다. 해방 후 윤세복에 의해 정리된 ‘우리말토씨본’과 ‘한글번역본’에서 『단조사고』의 저자를 대중교협제회(大倮敎協濟會)로 밝혔다는 것, 그리고 1954년에 대중교총본사에서 발행한 『한배일살핌』(檀祖事攷의 순우리말-필자 주)에서도 대중교 혹은 대중교협제회가 출판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단조사고』가 개인의 저술이 아니라, 대중교공동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오히려 『단조사고』저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당시 대중교의 인물들 중 어떤 사람들이 주축이였는가라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우선 당시 대중교 교주였던 나철의 만주 활동을 담아 위암 장지연에게 보낸 서신(書信: 1911. 10. 26) 내용이 주목된다. 당시 북간도 삼도구 청호에 근거를 둔 대중교시교당의 윤묵(尹默) 외 5인이 연명하여 보낸 내용을 보면,

“都司敎님(나철을 가리킴-인용자 주)께서 오직 우리 한배검의 영험이 깃든 壇城.祠.殿.陵.窟 등의 여러 곳을 봉심하여 각처의 고적과 江界 靑鶴臺 三石人 고적을 찾고 자 지난 7월 21일 출발 진행 중, 평안북

도에 이르러 한배검 영적이 만주에 많다는 말을 듣고 먼저 이곳을 찾고자 하여, 봉심하여 돌아 올 때까지 도사교의 사무는 本司 典務인 金獻(본명은 金敎獻-인용자 주)에게 위임 처리케 하고 곧바로 백두산으로 향하여 산 아래 간신히 다다르니 추석이 이미 넘은지라. 날씨가 벌써 얼음이 얼고 눈이 덮여 산길은 이미 막히고 겨울옷을 준비치 못하여 산 위의 宮과 閣을 찾아보지 못하니, 좁은 길을 따라 茂山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내년 봄 해빙을 기다리며, 다음에 기록하는 각 곳의 고적과 靈蹟을 차례로 찾은 후에 돌아가시겠다고 합니다.”<sup>53)</sup>

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열거한 지역의 고적과 영적 들은, 백두산(靈宮.古經閣.不咸池.內島山.外島山.松風蘿月木處.高句麗古城.高麗城.三韓石碣), 길림성(木葉山檀君廟.三聖山.檀城府.檀雲城.太古檀神祭遺墟), 성경성(檀君廟.古平壤.醫無閭山), 흑룡강성(伊勒呼里山.穆稜縣木處.檀君古蹟.高麗城古址.高麗塚墓.古碣)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많은 자취들이 『단조사고』 외편에 실려 있는 단군사적과 일치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나철이 대종교를 일으킬 당시부터 단군사적에 대한 자료조사가 조직적으로 진

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근거가 된다. 유근이 ‘단조사고편찬위원’에 임명되었다는 대종교의 내부 기록이<sup>54)</sup>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권덕규도 『단조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유근 선생이)大倭敎에 關한 文獻을 修輯하는 데에는 專心과 致力을 하였으니, 大倭敎로서 發布된 檀朝事故(檀祖事攷의 誤記로 보임-인용자 주)나 神檀實記는 이들(김교헌과 유근-인용자 주)의 손으로 나온 것이며, 비록 그 중 한 분의 이름으로 刊布되었다 할지라도 서로 補助의 적지 않은은 누구나 알 것이다.”<sup>55)</sup>

이것을 보면 『단조사고』의 편찬에 김교헌과 유근이 깊이 관여했음이 나타난다. 특히 김교헌이 1914년에 저술한 『신단실기(神檀實記)』에 『단조사고』의 내용이 거의 흡사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즉 『신단실기』는 『단조사고』의 내용을 주제별(檀君世紀.三神上帝.敎化源流.神異徵驗.壇祠殿廟.歷代祭天.族統源流.詩詞樂章.古俗拾遺.檀君享壽辨.檀君辨.江東陵辨.扶婁辨.太白山辨.平壤及湞水辨.檀君疆域考.白頭山考.白岳考.經史災厄)로 재정리한 것이다. 더욱이 『신단실기』의 족통

53) 「나철-장지연 서신자료(1911)」『국학연구(자료 소개2)』제8집, 국학연구소, 2003, p.408.

54) 『대종교증광육십년사』, 앞의 책, p.833.

55) 권덕규, 앞의 글, p.46.

원류(族統源流) 역시, 『단조사고』의 초두에 실린 「배달족원류도(倍達族源流圖-檀君血統)」라는 도표를 서술 형식으로 바꿔놓은 것에 불과함을 볼 때, 『단조사고』의 저술에 김교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단조사고』에 관한사서의 자료들이 많이 나타남을 보더라도, 김교헌의 역할이 지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교헌의 본관은 경주로 조선왕조 개국공신 이계성(李季誠)의 후손이며, 숙종왕후였던 인원왕후의 부친인 경은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으로부터 이어지는 전통가문(磚洞家門) 경은가(慶恩家)의 7대 종손이었다. 그는 18세에 문과에 급제한 후, 25세 때에 이미 정삼품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32세에 증보문헌비고찬집위원(增補文獻備考纂輯委員)으로 발탁되는가 하면, 42세에 국조보감감인위원(國朝寶鑑監印委員)으로 임명됨과 함께 규장각부제학(奎章閣副提學)에 취임되었고, 43세 때인 1910년에는 종이품 가선대부(嘉善大夫)까지 올랐던 인물이다.<sup>56)</sup>

김교헌이 『증보문헌비고』찬집위원과 『국조보감』감인위원, 그리고 규장각부제학을 역임했다는 것은, 그가 관찬사서.관찬자료.희귀사료 등을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찬자료.희귀사료 등을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교헌이 『증보문헌비고』 찬집위원과 『국조보감』 감인위원, 그리고 규장각부제학을 역임했다는 것은, 그가 관찬사서.관찬자료.희귀사료 등을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김교헌의 『증보문헌비고』찬집위원이라는 그의 이력이 주목된다. 당시 이 사업에 종사한 인사들은 전통시대의 역사문화, 의례제도 등에 밝은 인물들이었다. 찬집(纂輯), 교정(校正), 감인(監印), 인쇄(印刷) 등으로 구성되어, 칙명에 의해 찬집을 담당한 이들은 제조 박용대로부터, 종9품 종사랑 전 한성재판소 주사 홍성두에 이르기까지 총 33인, 교정을 담당한 신하(勅校正諸臣)들은 종1품 승록대부 의정부 참정 박제순으로부터 앞의 전 한성재판소 주사 홍성두까지 총 17인이다. 이어 감인제신(勅監印諸臣)으

56) 「茂園宗師略歷」『대종교중광육십년사』, 앞의 책, pp.365-367.

로는 정2품 자헌대부 내각 서기관장 한창수로부터 9품 종사랑 신태완에 이르기까지 총 9인, 인쇄제신으로는 종2품 가선대부 인쇄국장 김영한으로부터 9품 종사랑 인쇄국 교사 오태환에 이르기까지 총 3명이다. 후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각료로서 27년간 임시정부와 시종일관하여 운명을 함께 한 조완구는 6품 승훈랑으로서 이중하·김교헌·이범세·김택영·윤희구·장지연 등과 함께 찬집으로 참여하였고, 이중하·홍승목 등과 함께 교정(校正)으로도 참여하였다.<sup>57)</sup>

이 가운데 이중하는 1885년 국경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담판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며, 김택영·이범세·김교헌·윤희구 등은 만주에서 독립운동과 단군신앙(대종교) 등에 관계함과 아울러, 윤희구·이범세는 조완구와 교제가 깊은 인물들이다. 더불어 조정구는 흥선대원군의 사위로서 광무황제와 긴밀한 관계였고, 그의 아들들도 고종의 측근에서 비서감으로서 활동하며 헐버트와 함께 헤이그 특사 파견에 깊이 관여하였고, 이후 상해 임시정부는 물론 이회영 등과 꾸준히 연계가 있었던 인물이다. 특히 김교헌은 나철의 뒤를 이어 대종교 2대 교주로, 그 이후 대종교의 교리를 체계화 하고 독립

운동을 이끌어간 주요 인물임에 주목된다.

이들은 『증보문헌비고』 편찬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 법과 제도에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런 관심은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 입수된 서양의 근대법과 제도 등을 깊이 유념했을 것으로 추찰된다.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계기로 민족의 시조로 기록 혹은 전래되고 있던 단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한 점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증보문헌비고』에는 단군과 관련하여 소개된 내용만 해도 단군릉·단군묘·단군사·단군시(檀君詩)·단군입국·단군자부루(檀君子夫婁)·단군자삼랑(檀君子三郎)·단군제천단·단군제천처·단군제향·단군조국(檀君肇國)·단군조선국 등의 항목이다. 즉 단군의 능묘·사당·자손·제향·건국 등에 관련된 내용이 두루 등장한다. 후일 김교헌이 대종교에 참여한 후 정리·저술한 『단조사고』와 『신단실기』에 실린 단군 관련 자료와 이해가, 여기서부터 배태·축적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단군인식은 대종교 3세주였던 윤세복이 해방 이후 정리하여 발표한 「단군고(檀君考)」<sup>58)</sup>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증보문헌비고』는 조선조 500년 역사

57) 고전간행회編, 『증보문헌비고』상, 동국문화사, 1957, 5-7쪽 참조.

58) 윤세복, 「단군고」, 『(건국대학교)학술지』2, 건국대학교, 1959.

에서 정부의 주도로 단군에 관한 항목 등을 포함하여 전래의 제도와 문물에 관해 종합 정리한 최고의 백과전서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증보문헌비고』 편찬에 참여한 이들은 당대의 대학자 혹은 고위관료로서 후일 대종교 활동을 토대로 독립운동을 펼친 이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대한제국기 5년여에 걸친 『증보문헌비고』 사업 속에 담겨진 단군 관련 기록들은, 이후 단군인식의 소중한 토대가 되었다. 후일 대종교계통의 국학자와 독립운동가들이 가문·학문·종교·관직 등의 인연을 바탕으로 만주에서 그리고 상해 등지에서 민족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의 하나가 이러한 단군 관련 역사인식이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당시 『단조사고』에 실린 국승자료(國乘資料)들이나 희귀사료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임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었던 김교헌의 역할은 누구보다도 컸을 것이다. 후일(1914년) 『단조사고』의 내용과 유사한 『신단실기』를 김교헌 자신의 이름으로 펴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치 않았다.

따라서 『단조사고』는 대종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종교 저술로, 김교헌·박은식·

유근 등, 1910년대 대종교 남도본사계열과 황성신문계열의 대종교도들이 자료수집·검토·편집에 참여하여 이룩한 업적이었다. 특히 신교사관적(神敎史觀的) 식견과 국승자료의 수집에 있어 남다른 능력을 가졌던 김교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이것은 『단조사고』의 역사의식이 곧 김교헌의 역사의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김교헌의 신교사관이 곧 『단조사고』 형성에 근간이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단조사고』의 출간이 서간도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1911년 박은식이 서간도로 망명할 당시 김교헌이나 유근 등 대종교 차원의 계획에 의해 자료를 들고 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은식의 다음과 같은 망명의 변(辯)도 이를 뒷받침한다.

“一言一字의 自由가 없으니, 오로지 海外에 나가서 四千年 文獻을 모아 編纂하는 것이 吾族의 國魂을 維持하는 唯一한 方法이다.”<sup>59)</sup>

(12호에 계속)

59) 「年譜」『전집』제6권, 앞의 책, p.770.

국학 선열의 가르침 | 先烈高談

## 神//市//醫//學



김두중  
(1896~1988, 전 서울의대부속병원장)

이 글의 저자인 一山 김두중은 한국과학사가이자 의학사가로, 서울대 부속병원장과 조선적십자사 부총재, 숙명여대 총장, 성균관대 재단이사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특히 '한국고인쇄기술사'와 '한국의학사'라는 연구업적을 남겼으며, 그의 형인 김서종과 만주에서의 대종교 활동에도 헌신한 대종교의 원로다.(편집자주)

신시의학은 원시시대에 포괄되는 것이지만, 편의상 신시의 일기(一期)를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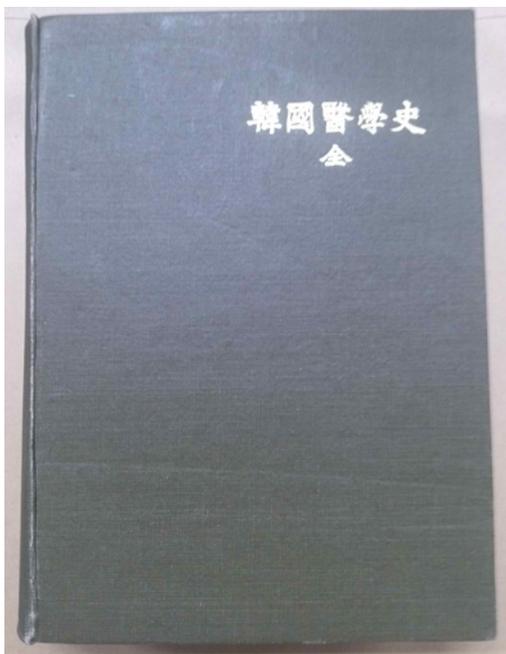
로 설정하기로 한다. 신시는 우리 민족의 신화시대, 신정(神政)기의 이름이다. 그 시기는 아직도 인지가 몽매한 시대이므로 모든 행령(行令)이 신화로써 전해졌으며 민중은 신의로써 그것을 존송하게 된다. 그런 까닭으로 그 민족의 문화를 탐구하는 데에는 그 역사에 앞선 신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통례이다. 우리 의학적 지식의 기원을 신정의 신화에서 추구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시의학의 지식은 대체로 원시인들이 생각하던 병마치료에 관한 미신적 방법을 주로 답습하여 온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혀 원시적 경험과 미신적 방법의 범위에만 그치지 않고 일보를 더 전지하여 약제를 응용한 요법이 병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신시의 신화에 관하여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를 적으면 아래와 같다.

「환웅이 무리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시어 신시라 이르니 이가 환웅천왕이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과 목숨과 질병과 형벌과 선악으로 인간 삼백 예순 여 일을 다스리시니 세상이 이치로 되어갔다. 때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한 동굴에 살면서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항상 한웅께 기도하였다. 때에 환

웅이 쑥 1심지와 마늘 20줄기를 주며 너희들은 그것을 먹으며 백일 동안 해를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 해서 그것을 먹었다. 삼칠일을 꺼려 꿈은 여자가 되고, 호랑이는 꺼리지 않아 사람이 되지 않았다. 웅녀는 혼인할 사람이 없어 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잉태하기를 빌었다. 환웅이 이에 임시로 바뀌 웅녀와 혼인하여 자식을 얻어 낳아 부르니 단군왕검이다」 (삼국유사 기이권 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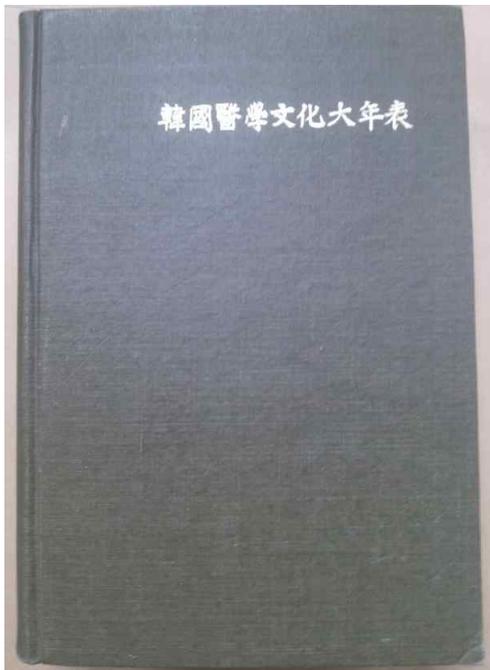
초두에 神市醫學이 실려 있는 김두종의 한국의학사의 표지 사진

이 신화는 환웅천왕이 신시를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배포하신 후 풍백 우사 운사들을 거느리시고 곡식, 명령, 질병, 형벌, 선악 등 오대강목으로서 360여조에 이르는 인간의 모든 일을 치화하신

것이므로, 이미 신제(神祭)를 일삼는 무주(巫呪)의 직능과 신정을 배푸신 군주의 직령이 일원적으로 행하여지게 된 때라고 볼 것이다. 원시사회에 있어 제정이 일치되는 것은 인류학적으로도 넉넉히 용인되려니와, 이 신화의 주이신 천왕이 하강하신 신단수 아래가 곧 신역(神域)의 제단을 의미한 것이라 하며, 또는 천왕의 아들이신 단군이 ‘무당’의 일명인 ‘당골’의 음을 베낀 것으로 군주와 무직을 겸행하는 신인의 격을 갖추신 군사(君師)의 칭호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데서 더욱 제정일치의 원시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sup>1)</sup>

그러므로 그 명령을 받은 풍백 우사 운사들이 곡식 명령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360여사를 주관함에 있어 정령(政令)을 전달하는 이외에 무주의 직능까지 겸행하였을 것도 의심될 바 아니다. 원래 사(師)라는 칭호가 정령을 행하는 관직자에 사용되지 않고 교화 및 기술방법을 주로 맡아보는 이의 직업자에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의사 복사(卜師) 약사 등 기술자에 사자를 붙여 쓰이는 예에서 봄과 같으며 또한 우리의 현대어 중에서 지방적이지마는 현재 함경도 등지에서 무격(巫覡)의 류를 스승이라고 부르는 즉 사(師)가 무(巫)로 통

용되는 예가 남아 있는 것 등으로써 넉넉히 추증된다.<sup>2)</sup> 아마 그 당시의 사들의 직무는 정령을 배포하는 관직보다 오히려, 무주(巫呪)적 술법을 주로 하는 교화에 더 힘썼을 것이므로 병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특히 주력(呪力)적 방법이 많이 요청되었으리라고 믿어진다. 이제 그 방법으로서 앞에 적은 고기의 신화에서 기도, 주원(呪願), 금기(禁忌) 등을 들 수 있다.



김두종이 저술한 또 한 편의 역작인 한국의학문화대연표의 표지 사진

**기도** 자연의 모든 현상을 신비적으로 관찰한 고대에 있어서 기도가 그 신령을 위안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은 어느 민족에서든지 공통되는 현상이다. 앞에 인용한 고기에 곰과 호랑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였다는 것도 이러한 예이다.

**주원** 주원은 자신의 욕구를 주원의 방법에 의하여 성취코자 하는 것이다. 고기에 웅녀가 단수 아래에서 임신하기를 주원하였다는 데에서 신시대에 이미 이 방법이 실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금기** 고기에 곰과 호랑이가 썩과 마늘을 먹고 삼칠일을 꺼려 곰은 여자가 되고, 호랑이는 꺼리지 않아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곰은 금기적 재계를 엄수함으로써 여자의 몸을 얻게 된 것이며, 호랑이는 금기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곰과 호랑이가 사람 몸으로 바뀔 때 썩과 마늘을 복용하면서도 반드시 금기가 필요되는 것을 표시한 것이므로 신시대에 이미 금기적 재계법이 행하여진 것이다.

이상에 적은 세 방법은 주로 신령의 용서와 도움을 얻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병을 주(主)로 하는 사(師)들의 치화 중에 적용되었을 것이며, 또한 민중들이 자신의 불행인 재앙과 질병을 물리치고자 하는 벽마(辟魔)의 목적에도 물론 응용되었으리라고 믿는다.

그런 까닭으로 이 시대의 병리학적 지식은 역시 신비력에 의존된 정령병인설(精靈病因說)의 지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볼 것이다.

**약물요법** 앞에 인용한 고기의 인용문에 환웅천왕이 곰과 호랑이를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썩 1심지와 마늘 20 줄기를 먹으라고 내려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썩과 마늘이 곰과 호랑이를 사람으로 변하게 하기 위한 식이적 재료로 제공된 것이다.

그런데 동일 계통의 신화를 전한 문헌으로 볼 수 있는 고려말 이승휴의 제왕운기(하권)에<sup>3)</sup>본기를 인용하여 곰이 사람으로 변화함을 적음에 있어 썩과 마늘이라는 글자를 아주 삭제하고, 다만 ‘약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라는 문구를 대응하였을 뿐이며,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에 단군고기<sup>4)</sup>를 인용한 문에도 제왕운기와 같이 ‘약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쓰여 있다. 동일 계통의 신화를 적으면서, 더구나 삼국유사나 지리지는 같은 고기를 인용하면서도 전자에는 썩과 마늘로 적혀 있고 후자에는 다만 약이란 자로 대응되어 있다. 이것은 썩과 마늘이 그 당시에 식이 이외에도 약재로도 사용되었던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러한 약재가 곰과 호랑이와 같은

짐승들이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것은 신화적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약제가 신시대에 어떠한 병에 또는 어떻게 효용된 것인지 전연 그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다. 다만 썩은 명의별록(名醫別錄)<sup>5)</sup>에 ‘주로 모든 병에 뜸을 뜬다’하였고, 도은거(陶隱居)의 주(註)에는 ‘썩을 찢어 모든 병에 뜸을 뜬다’하였으므로, 썩이 뜸술을 시행하는 유일의 기본적 재료가 되었다. 신시대에 있어 썩이 식이적 내용약재로 사용된 이외에 썩뜸술에도 응용되지 아니하였던가 생각된다. 이것은 삼국지위지(권31) 오환전(烏丸傳)에 ‘오환인이 병이 있음에 썩뜸을 알 뿐이고 침약은 없다’고 기록됨에서 미루어 알 수 있다. 이 기사는 원래 동호족에 속한 고대 오환인들의 의약이 발달되지 못한 시대의 상태를 전한 것인데, 부여 예맥 고구려 등 동이족과 인접하여서 그 풍속 습관이 유사한 점이 많았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썩과 마늘에 대하여 중국 본초학의 유일 고전인 신농본초경<sup>6)</sup>에는 채록되어 있지 않고, 후한으로부터 위진 시대에 이르러 차차 채용되어 왔다. 후한시대는 단군건국으로부터 이미 오랫동안 뒤떨어진 시대이므로 본약제가 동방

의 지역에서 먼저 응용되었던 것이 아닌  
 가도 생각된다. 다만 그 출전만으로써,  
 약제의 사용된 연대를 속단할 수는 없으  
 나, 적어도 본약재의 응용은 중국 본초  
 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자적 전통에서  
 발전되어 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김  
 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66.)

- 1) 최남선, 불함문화론11, 건국설화상의 天과 단  
 군(조선 및 조선민족 제1집).
- 2) 최남선, 조선상식 방술편 師. ; 홍양호, 이계집  
 권2, 화락잡론, 화속편.
- 3) 이승휴, 제왕운기, 권하.
- 4) 세종실록지리지, 평양부.
- 5) 명의별록은 그 일본의 형태를 알 수 없으나,  
 그 文은 경사증류대관본초(經史證類大觀本草)  
 에 의거함(大觀本草, 권9, 草部中品.)
- 6) 中尾萬三, 본초서목(本草書目)의 고찰 『신농본  
 초경』, 신농본초경은 어느 때부터 성립된 것인  
 지 한서(漢書) 예문지에는 그 책제목을 볼 수  
 없고, 진(晉)의 장화(張華, 서기 280년)가 지음  
 이라고 전하는 박물지에 처음으로 그 책제목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양(梁)의 본초 책제목 중에  
 는 이당의 본초경, 후한 화타 제자인 오진본초  
 에 책제목이 있는데, 신농본초경은 후한시대의  
 오진본초나 그보다 앞선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당의 본초경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반고  
 의 예문지 이후, 후한 건안(원년이 서기 196년)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미루어 생각되나, 그 내  
 용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先秦)시대의  
 본초학적 지식을 전해 온 것으로 볼 것이다.

# 비타민D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이윤수(연세우수의원 원장)

**요**즘 비타민D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가 짧은 북유럽 사람들보다도 비타민D의 수치가 낮아서 10명중 6-7명이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또 폐경기 여성들은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18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한다.

이는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장인을 비롯해, 외출은 않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부, 하루 종일 교실에서 공부하는 청소년 등 야외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생활습관 때문이다. 또 외출을 한다고 해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온몸을 감싸서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비타민D가 부족해진다.

비타민D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다. 플랑크톤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햇빛 노출을 통해 비타민D를 생성해 이를 이용한다. 사람은 햇빛 노출이 부족해지면 비타민D 부족으로 뼈에 미네랄 침착이 안 되어 약해지는 구루병이 생긴다.

구루병이 처음 밝혀진 것은 1600년대 중반으로, 산업혁명으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스모그 현상으로 대기오염이 심해져 비타민D합성이 줄어들면서 구루병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영국의사인 다니엘 위슬러는 구루병의 임상양상과 증상을 최초로 보고하였다.

한편, 북유럽의 해안가에서는 전통적으로 대구 간유를 이용해 구루병을 치료해 왔는데, 여기에 함유된 물질이 바로 비타민D이다. 이후 여러 연구결과, 햇빛과 대구 간유가 구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밝혀졌다.

1920년대 미국정부는 구루병을 예방하기 위해 일광욕을 권장하였고 우유에 비타민D를 첨가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로는 햇빛이 피부암을 유발하고 피부노화를 촉진한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

제가 대중화되었는데, 이후로 구루병이 다시 증가하였고 유방암, 대장암 등의 발생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최근 들어 비타민D는 다양한 질병과의 연관성이 연구되고 있다. 비타민D는 세포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세균과 바이러스의 감염을 차단하여 감기, 인플루엔자 등 감염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또한 결핵에 대한 면역반응을 향상시켜 활동성 결핵의 치료효과를 증대시킨다

비타민D는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인슐린의 저항성을 감소시키며, 면역조절작용으로 당뇨병의 발생을 지연시킨다. 이는 췌장의 베타세포에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매개물질을 감소시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기능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비타민D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력을 강화시켜 노인들의 낙상과 골절위험을 감소시켜 준다. 또한 만성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시키며 골관절염의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한다.

우울증에 대한 연구결과 비타민D가 낮은 사람들은 우울증이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한다. 비타민D가 우울증을 치료하지는 못하더라도 우울증치료에 비타민D를 병용할 경우 좋은 치료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많은 여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월경전 증후군의 경우 비타민D의 치료결과 우울감, 부종, 월경통 등의 증상이 매우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충분한 비타민D 수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사람은 햇빛과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D를 얻을 수 있다. 햇빛을 통한 비타민D의 합성은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6월 정오의 햇빛을 기준으로 자외선 차단제 없이 주 2-3회, 10-20분간 노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음식을 통해서도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말린 표고버섯, 목이버섯 등 비타민D가 많은 음식을 주 2-3회 섭취해야 한다.

이러한 식이,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비타민D를 유지해야 하고 그래도 혈액검사상 수치가 낮을 경우에는 먹는 영양제나 주사제를 통해서 비타민D를 공급해야 한다.

## 단군계의 표성-조선심을 구현하라

최남선

조선의 모든 것이 단군으로 모아지고, 단군으로부터 조선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과 같으니 한 마디로 단군이 곧 조선이다

**단**군은 조선과 조선심의 궁극적 표식이다. 역사적으로는 단군이 조선 국토의 개척자요, 조선 문화의 창조자요, 조선 생활의 건설자이다. 혈연적으로는 단군이 조선 민족 전체의 조상이요, 조선 겨레가 모셔야 할 큰 사당이요, 조선이라는 집의 큰 동량이다. 신앙적으로는 단군이 조선 정신의 인격화요, 조선 이상의 최고조요, 조선 원리의 총괄점이다.

**조**선의 모든 것이 단군으로 모아지고, 단군으로부터 조선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과 같으니 한 마디로

단군이 곧 조선이다. 단군은 다만 어느 때 한 번 다녀가신 한 인격체가 아니라 조선심의 구체적인 표상인 점에서 조선 역사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또한 단군은 역사적으로 생명한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조선인이라는 공통된 삶과 조선심이라는 전통적 마음이란 면에서 조선인의 자아이기 때문에 단군과 내가 하나요 둘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최대한도로 확장해 만나는 것이 단군이다. 단군과 각자의 자아를 합해서 보는 것이 조선인인요, 조선인으로서의 삶을 영원히 편안하고 매우 아름답게 하자는 공동 욕구가

조선심이다.

따라서 지엽 말단에 불과한 조선인의 번영과 쇠퇴는 그 근본인 단군 의식의 수축과 팽창에 달려 있는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조선 생활의 아름다움과 추함은 그 거울인 단군으로 귀의하느냐 마느냐로 드러나는 것이다.

민족 생활의 체온계인 단군은 조선이라는 몸의 건강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단체 운명의 점지자인 단군은 조선의 앞날의 성패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그러므로 조선의 모든 평지풍파는 온통 단군이라는 태양의 움직임과 팽창, 축소에 의해 판단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실로 조선인으로서, 뜨거운 생명의 소유자로, 단체 생활의 순수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누가 단군을 떠나서 이념을 세우고 진리를 세울 수 있겠는가. 단군의 위업을 가리고 침상에서도 단군을 뵈옵지 아니할 자 있겠느냐.

그렇다 조선 하늘의 무수한 별 등은 단군에 기대어서 빛을 내고 비등점을 얻을 것이다. 단군이라는 기둥을 바로잡고 튼튼하게 하지 아니하면서, 조선을 가지고 이려고저려고 함을 공허한 망상인 이 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의 건국 신화는 전 세계에 있는 원시 철학, 특히 그 인생관, 세계관 중에

서 가장 순수하고 건전한 것이다.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하면 첫째, 하늘에서 인간으로 확장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고 둘째, 인간이 하늘의 뜻을 복종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활을 생각하고 셋째, 삶의 터전을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으로 이상화하는 것이 조선 건국 신화의 골자이다.

그것은 이 민족의 커다란 정신적 건물이다. 이렇게 커다랗고 올바른 이상을 역사적 건국자의 몸에서 읽어 내고 건국의 발전 과정을 몸으로 느껴 일종의 실험론적 민족 철학을 형성한 것이 단군 중심 조선사의 출발점이다.

### **조선의 건국 신화는 전 세계에 있는 원시 철학, 특히 그 인생관, 세계관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건전한 것이다**

태백산과 평양과 아사달은 청천강 좌우가 조선 문화의 요람지인 사실에 의거해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연출하는 무대로 설정된 것이다. 단군이 이룩한 조선의 창업, 그리고 그 창업이 이루어졌던 세 지역은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든 혹은 이상적으로 보든 즉 유구한 과거 사실의 흔적으로 보든 아니면 영구한 민족 이상의 상징으로 보든 진실로 고귀하고 신성한 유적으로 우리가 최고로 존경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비록 과적의 일시적인 유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장 발전의 한 고리라면 거기에 깊은 감동을 느껴야 하거늘, 그것이 조선 민족의 영구적인 이상을 올린 봉화대요 조선 생명의 영원한 원동력을 공급하는 저수지임을 생각하면 다행스럽게도 전해져 오는 이 신성한 유적을 어떻게든 정성스럽게 지키고 보전해야 함을 깨달을 것이다.

이 봉화가 꺼지고 이 수원이 말라 버린다면 그것은 조선 민족의 정신적 황폐를 보여 주는 것이고, 조선 생활의 근본적인 위축을 의미하는 것이며, 조선의 모든 운명이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달리 암흑 속에 침체되었던 조선에 부활의 서광이 비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밝은 빛이 단군의 머리에 비추어 신성한 유적에 기쁨의 햇살이 넓게 퍼져 나갈 것이다.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어찌 갱생을 하겠는가. 조선아(朝鮮我)에 눈을 뜨면 단군 생각이 어찌 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단군께로 고개를 돌리면 그 하늘의 뜻을 이룩한 자취를 어찌 초야에 파묻어 두기만 하겠는가.

**조** 선인은 지금 입만 열면 민족애를 말하고 국토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그것의 부활을 믿으며 그것의 쇄신에 힘쓴다.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 어찌 이것뿐이겠는가. 인간에게 가장 큰 것이 신념이다. 만약 그 신념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면 천하여 이것보다도 더 명확한 사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답답하고, 어디에 그 신념의 징조가 나타났나 하여 둘러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다. 자기에 대한 자각이 있는가? 자기의식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의지해 있는지에 대해 얼마만큼 반성과 각성을 하고 있는가? 남을 움직이고자 할 때 내가 발밑에 딛고 설 곳을 정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조선인으로서 생활 철학, 생활 욕구가 있는가 없는가? 멀리 본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발 앞은 캄캄하지 아니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아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지 아니한가? 어떻게 우리의 보조를 맞추고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의 목표로 집약한 노력을 할는지, 그 초점이 무엇이고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착실하게 생각하는가?

단군을 생각해야 하며 단군으로 돌아와야 하며 단군에서 출발해야 하며 단군 위에 건설해야 할 것이다. 조선의 부활

원리와 조선인의 생활 윤리는 오직 단군에 있을 뿐이다. 마음을 바로잡아 단군으로 모으고 어지러운 발걸음을 바로잡아 단군으로 향한 뒤에야 비로소 그 다음의 다른 모든 것에 대해 말한 나위가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어떠한 사실에 있어서는 오직 '조선인으로'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앞날의 광명이니, 조선인의 구심이자 원심은 단군 이외의 무엇이 있겠는가.

**단군을 생각해야 하며  
단군으로 돌아와야 하며  
단군에서 출발해야 하며  
단군 위에 건설해야 할 것이다. 조선의  
부활 원리와 조선인의  
생활 윤리는 오직 단군  
에 있을 뿐이다**

생각이 한 번 여기에 미치면 단군의

앞에서 똑똑한 체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단군을 통한 조선 정신의 다보탑을 모신 곳인 하늘에서 내려오신 곳, 나라를 세우신 곳, 신화가 남아 있는 곳 등 세 곳의 옛 유적을 저 꼴로 버려 두고 있는 것은 조선인의 큰 죄악이며 조선 부활에 대한 큰 저주임을 깨달을 것이다. 조선의 부활은 정신에서 비롯될 것이요, 단군에 대한 감동은 신성한 유적에서 비롯될 것이다. 신성한 유적을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잠도 입도 달지 않게 될 때, 진정한 부활이 우리의 마음에서 싹 돋을 것이다. 단군에 대한 정성이 이래야 되겠는가. 생각하자. 참회하자. 그리하여 하나 된 조선심으로 하나 하나 옛 유적을 존경하고 보전하는 일을 구체화해 가자.

(이 글은 최남선이 1926년 12월 12일 《동아일보》에 발표했던 글 가운데 주요 부분을 발췌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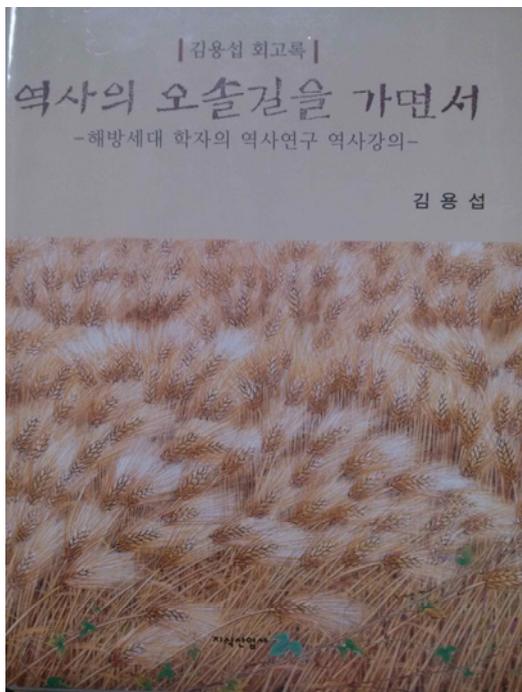
책으로 사색하다 | 책소개

##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

지은이 / 김용섭

출판사 / 지식산업사

출판연도 / 2011년



이 책은 역사학자 김용섭 교수(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팔순(2011년 당시)되는 기념으로 펴낸 회고록적 성격의 저술이다.

김용섭 교수는 동년배 역사학자들에 비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임 때는 물론, 정년 퇴임 이후에도 활발한 저작 활동을 통해 한국역사학계에 중요한 위치를 개척한 인물이다.

특히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는 8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해방세대 학자의 역사연구 역사강의-'라는 부제에서 보듯이, 그의 연구적 삶을 정리한 회고록이다. 한국 농업사 연구에 투신한 과정과 성과,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조선은 정체한 사회였다'는 식민주의 역사학의 오랜 주장을 극복해 온 여정 등을 정리했다.

우리가 이 책을 주목되는 것은 김용섭 교수의 용기 있는 고백이다. 1959년 이래 서울대 사범대 교수로 있다가 1966년 같은 대학 문리대 사학과(나중의 국사학과)로 옮긴 그가 왜 1975년 서울대를 떠나 연세대 교수로 직장을 옮겨야 했는지를 밝힌 연유가 그것이다.

김용섭 교수가 더 이상 서울대에 남아 있을 수 없던 사정은 무엇이었을까? 김 교수는 자신이 1960년대에 전개하기 시작한 '문화학술운동'을 그 이유로 들었다.

김교수의 회고 한 토막을 살펴보자. "당시의 시대적 과제를, 일제와의 관계에서 아직도 해결안 된 문제, 즉, 일제강점기에 그들이 침략정책으로서 깔아놓은 식민주의 역사학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와 아울러, 우리의 자주적인 새로운 역사학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로 문제로 압축하고, 그와 관련된 역사연구를 성찰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운동으로 전개되었다."(466쪽)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김교수의 '문화학술운동'이 '식민주의 역사학 청산'과 '자주적 역사학의 건설'로 압축됨을 보여준다.

더욱이 김교수는 당시 학계에 팽배한 식민주의 역사학을 구체적으로 "한국사 또는 한국문화의 발전에는 주제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타율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사에는 내적 발전이 결여되고 있다는 정체성 이론의 문제"를 들면서 이를 청산하는 일이 시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운동 당시에는 마침 한일국교 정상화 회담이 진전되어 식민주의 청산은 더욱 절박한 시기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 옮김에 기득권세대의 반발은 너무 컸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서울대 문리대 내부, 특히 사학과(나중에 국사학과) 내부에서 적지 않은 알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회고록에서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김교수는 당시 학과 동료 교수이기도 한 고(故) 한우근과 김철준 교수에게 각각 두 번씩 호된 질책을 받기도 한다.

"(김철준 교수가) 한 번은 나를 보고 웃으시며, '김 선생, 김 선생 민족주의는 내 민족주의와 다른 것 같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노발대발하시며, '이○○ 선생에 대해서 무슨 글을 그렇게 써!' 하시며 질책하셨다. 마치 부하 직원이나 제자를 대하듯 나무라셨다. 전자는 경고성 발언이고 후자는 절교성 발언이라 생각되었다."(770쪽) 나아가 한우근 교수는 여러 사람이 동석한 가운데 김 교수에게 "김 선생, 우리 이제 민족사학 그만하자"고 했다고 회고했다.

이번 회고록에서 놀라운 점은 당시 김교수가 주창한 식민주의 청산운동에 그 청산의 핵심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일본의 학자들도 김 교수를 향해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이다.

김용섭 교수가 고백한 사례를 보자. "(한 번은) 너덧 명의 중년·노년 교수가 내방하였다. 노크를 하기에 문을 열었더니, 김원룡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제 때 경성제대에서 내가 배운 스에마쓰(末松保和) 선생님인데, 김 선생 강의를 참 관코자 하시기에 모시고 왔어요. 김 선생 되겠지?'하는 것이었다."(768쪽) 스에마쓰는 조선총독부 관리이자 경성제국대학 교수로서 임나일본부설을 체계화하는 등 식민주의 역사학을 제창하고 수립한

중심인물로 활동한 자가 아닌가. 당시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교수인 김원룡은 경성제국대학 시절 그의 제자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병도가 광복 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로 재직할 때, 일본에서 신도(神道)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유명한 덴리(天理)대학교에 가서 신도의 도복을 입고 예식에 참석했다는 김용섭의 다음 증언은 충격을 넘어 인간적 절망이 앞선다.

“한 번은 두계(이병도의 아호-편집자 주)선생이 덴리대학 초청으로 일본에 다녀오셨는데, 그 대학에서 한(한우근 교수를 칭함-편집자 주)교수와 나(김용섭)를 초청하니 두 사람이 상의해서 다녀오라고 하셨다며, ‘김선생 같이 갑시다. 김선생이 간다면 나도 가고 안 간다면 나도 안 갈래.’하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두계 선생이 덴리대학에 가시니, 그 대학이 덴리교天理敎의 도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토록 하였다는 군.’이라고도 덧붙이셨다. 나는 거기는 아직도 총독부 시대이구나 생각하였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차 멀미를 많이 해서 여행을 못합니다. 선생님만 다녀오십시오.’하고 사양

하였다.”(770-771쪽)

해방 이후 우리 역사학계를 이끌어온 두계라는 한 인간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고백이다. 덴리대학교는 일본의 신도 종교단체인 덴리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이다. 덴리교 본부가 있는 덴리시는 종교도시이며, 덴리교는 "모든 일본 국민이 한마음으로 천황의 뜻을 받들어 충성과 효도의 미덕을 발휘한다"는 황국사관을 신봉한다. 황국은 '천황이 지배하는 국가'라는 뜻이다.

아무튼 김용섭 교수는 학교 안팎에서 압력이 거세지자, "그리하여 나의 문화학술운동은 사실상 끝이 났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서울대학교의 관악산 이전을 계기로 나도 이 학교를 떠났다"고 회고록에 적었다. 식민지사관 극복을 위한 애뜻한 노력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어버렸음을 실토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한국사학계에서 금기시하는 일제식민지사학의 인물들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연구소 연구발표회 성황리에 진행

1. 지난 3월 37일 한국외대에서 열렸던 본연구소 1/4분기 연구발표회(제37차)가 발표자, 토론자, 참석학자들의 열띤 참여 속에 2시간 동안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대종교 세력 형성의 과정과 그 의미」라는 발표를 맡은 본연구소의 신운용 연구원은, 대종교 성립의 역사 사회적 배경을 살피고, 대종교 세력에 대해 자신회계열, 공업전습소계열, 무관학교계열, 개신유교계열, 대동청년단(조국광복단)계열, 국문연구소계열로 나누어 구체적 인맥형성의 과정을 파헤쳤다.

또한 토론을 맡은 이숙화(한국외대 강사) 교수와 여러 학자들의 열띤 질의와 답변에 의해, 2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몰입했다.🌟

2. 지난 6월 17일 외대본관 109호에서 개최된 본연구소 2/4분기 연구발표회(제38차)가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신찬성씨록』과 고대 한일동족설의 관점 연구」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연구발표는 발표를 맡으신 홍윤기 교수의 열띤 발표로 예정 시간(60분)을 훨씬 넘긴 1시간 40분이나 이어졌다.

특히 발표 이후 참석자들의 진지한 질의와 홍교수의 진지한 답변으로 일본의 왕족 및 귀족의 대다수가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임을 『신찬성씨록』과 관련하여 확인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에 보다 깊고 넓은 연구의 필요성을 공감케 했다.🌟

## 2014년 해외국학답사 개최

본연구소에서는 지난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2014년 국학답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때 : 2014년 8월 13일부터 8월 17일(4박 5일)  
 곳 : 만주 국학 관련 지역  
 답사주제 : '민족, 역사 그리고 국학'-그 걱정의 현장을 가다  
 참가대상 : 본연구소 이사진 및 연구진  
 참가인원 : 20명

박성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국학현장 견학을 통하여 국학의 저변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